

임업관측사업

2008년 사업결과와 2009년 추진계획

장 철 수 연구 위원
석 현 덕 연구 위원
김 영 단 초청 연구원
김 현 근 위촉 연구원

머 리 말

임업관측사업은 임산물의 단기 동향을 분석 및 전망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종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교역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임산물 관측에 대한 수요와 관측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지원 하에 2003년 봄을 시작으로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등 임업관측 대상 품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관측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건변화와 현지사정에 밝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앙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중앙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지에는 품목별 표본 임가, 통신원 및 지역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관측결과의 신속한 분산을 위해 월보발행과 함께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관측정보란에 임업관측정보를 두고 임업관측월보와 연차동향/전망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발행된 월보는 표본 임가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지역조합, 시·군 등에 배포가 되며, PDF파일로 변환하여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도 인터넷을 발송하여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 연구 자료는 2008년도 임업관측사업의 결과물과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 자료가 임업관측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산림청 관계자와 임업관측사업에 협조해 주신 중앙 및 지역자문위원, 통신원, 표본 임가, 시·군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목 차

제1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2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3
4. 기대 효과 5

제2장 2008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6
2. 임업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7
3. 임업관측사업 추진결과 9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14

제3장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계획

1. 대상 품목 및 내용 28
2. 세부 추진계획 29
3. 임업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31

제4장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1. 밤 33
2. 표고버섯 46

- 부록 1: 임업관측(밤) 월보 61
2. 임업관측(표고버섯) 월보 91
 3. 임업관측(대추, 뽕은 감) 월보 127
 4. 2008년도 임업관측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149

제 1 장

임업관측사업의 개요

1. 임업관측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1. 임업 관측사업의 필요성

-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액과 생산자수도 많으며 농산촌 주민의 소득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품목은 생산자수가 많고 생산의 계절성을 가지므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도로와 교통의 발전은 물류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임산물 판매에서도 속도와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음. 출하시기에 따라 생산자 판매가격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임.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산물 시장은 국내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장 변화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음. 해외 시장의 변화는 국내 생산과 가격,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임산물 생산계획 수립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음.
- 시장동향과 가격, 해외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임산물의 시장 출하를 안정시켜서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로 임가 소득을 안정시키게 될 것임.

-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산물 시장의 정보수집과 분석, D/B 구축, 관측 및 관측결과물의 분산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임업관측 사업이 필요함.

1.2. 임업관측사업의 목적

- 임업관측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임업부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종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어 관련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응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단기적인 출하와 가격, 출하시기 등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재배자들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출하를 조절하는 의사결정을 돕고, 궁극적으로 임산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임산물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등을 위해 임산물 재배동향, 가격동향 및 수급동향에 관한 중단기 예측정보를 개발하고 관측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2. 임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

- 작황, 가격, 수출·입, 해외시장 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임산물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유도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자율영농의 기반을 마련함.
 - 광범위한 정보수집 체계 확립
 - 종합적 정보 분석 능력제고
 - 관측정보 분산체계 확립

- 임산물 시장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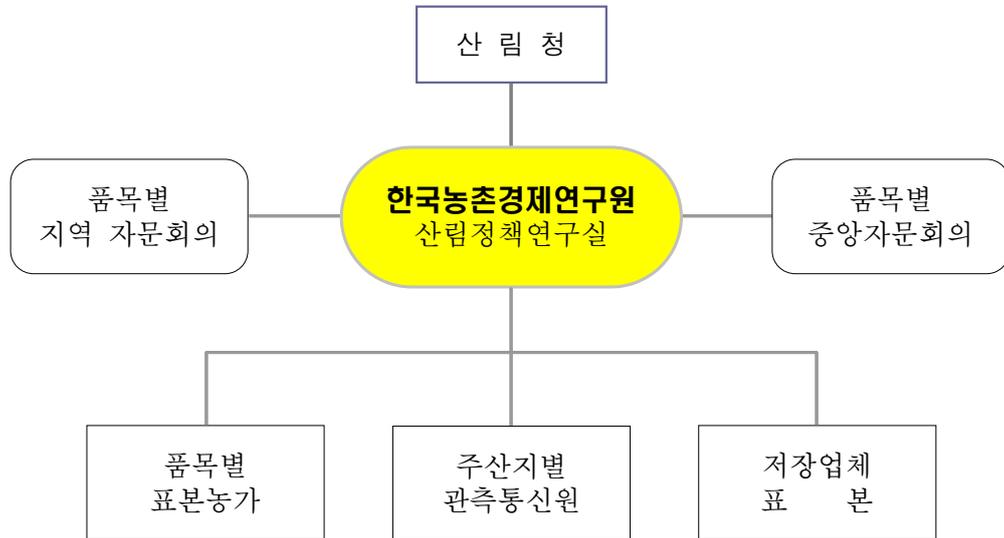
3.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3.1. 임업관측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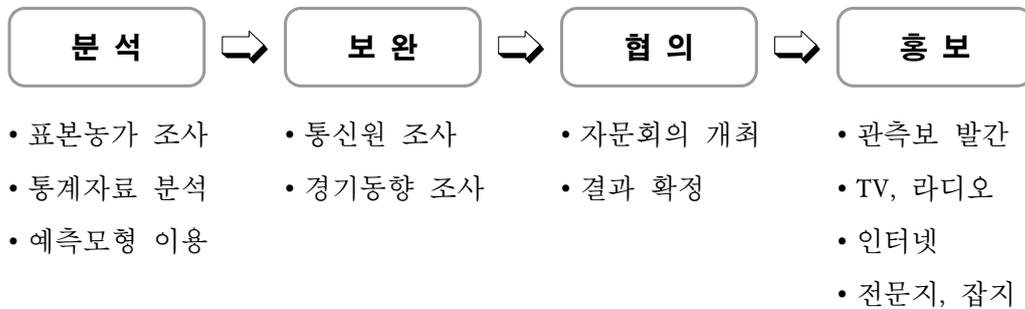
- 품목별 시장동향 및 단기전망
 - 품목별 재배동향 및 단기예측
 - 품목별 작황 및 출하 동향, 가격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연차 동향 및 중장기 전망
 - 거시경제, 품목별 국내외 시장의 연차동향
 - 품목별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전망
- 관측/전망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임업관측 홈페이지 구축, 콘텐츠 개발·유지 및 관리
 - 관측 D/B구축 및 현황 정보 제공
 - 관측정보시스템 개발
 - 단기 예측기법, 중장기 예측모형 개발

3.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3.2.1. 관측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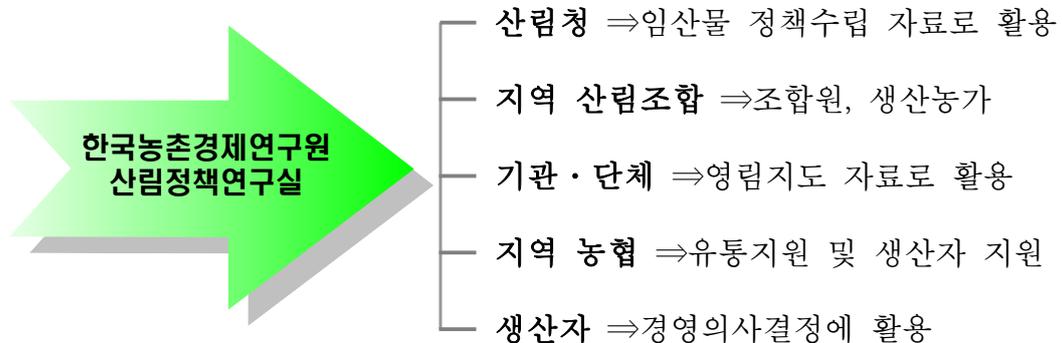
3.2.2. 관측 방법



3.2.3. 관측결과 홍보

- 본안 홍보 : 임업관측 월보, 인터넷
- 진단 홍보 : 필요시
- 해설 홍보 : 전문지, 신문, TV, 라디오
- 교육 활동 :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자 교육

3.2.4. 홍보 체계



4. 기대 효과

- 임산물의 품목별 수급동향, 가격 동향 및 미래정보를 제시하여 생산자들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배품목의 선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 정확하고 신속한 시장정보의 제공을 통해 임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임산물의 시장 정보를 인터넷, TV, 라디오, 월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생산 및 유통 종사자의 정보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상시적인 시장정보의 수집으로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제 2 장

2008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결과

1. 임업관측 대상 품목, 금액 및 내용

1.1.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 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뽕은감
- 사업 금액: 4억원¹

1.2.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가격동향 및 전망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생산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저장 동향
- 해외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¹ 예산내에는 대추재해보험도입을 위한 기초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2. 임업관측사업 추진일정 및 체계

2.1. 관측 일정

□ 밤

- 준비작업: 2008년 1~2월
- 월보발간: 2008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를 발간
 - 발행부수: 3,000부

□ 표고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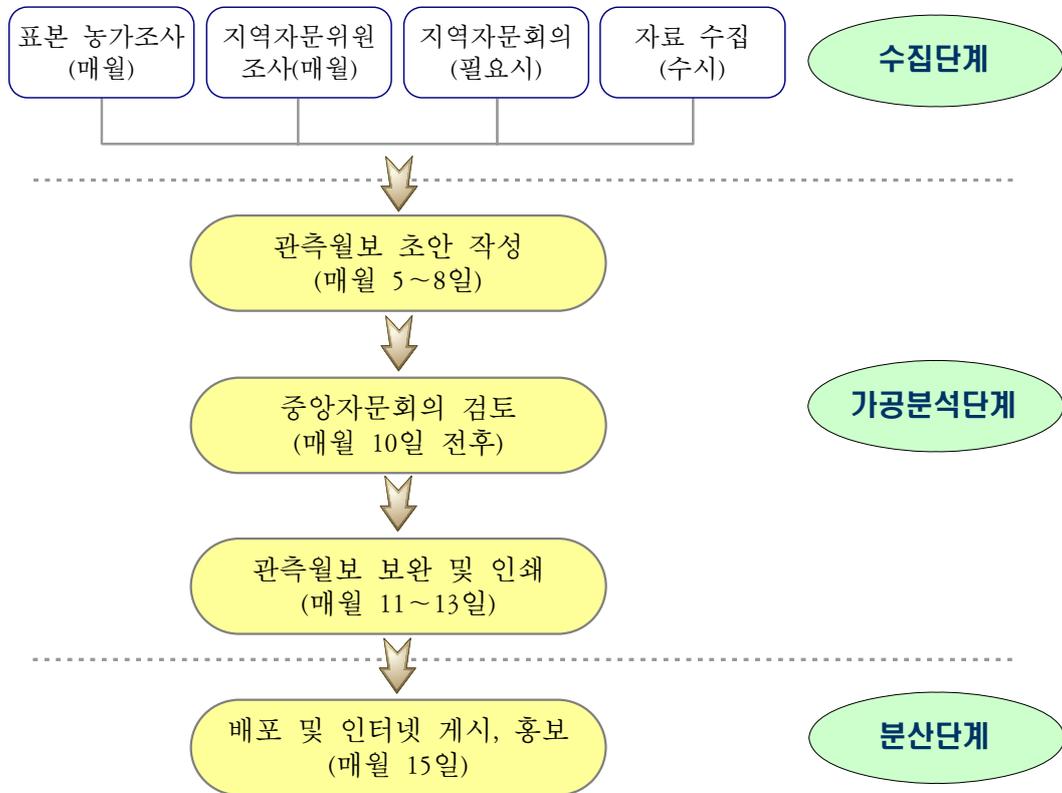
- 준비작업: 2008년 1~2월
- 월보발간: 2008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3,000부

□ 대추·뽕은감

- 준비: 2008년 2~7월
- 월보발간: 2008년 8월부터²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 수확기를 전후하여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2,000부

² 당초 8월부터 발행예정이었으나 생육상황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재배자들의 요청에 의해 4월 15일 날 1회 발행 추가

2.2.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3. 관측결과의 분산체계

- 임업관측보 우편 발송
 - 월 보 (매월 15일 우송)
 - 산림청,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표본농가, 지역자문위원, 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지 농협, 기타
- 전문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 게시
 - KBS 텔레비전, 라디오 등
 -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http://www.forestinfo.or.kr>)

- 각종 전문지에 게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 임업후계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정책모니터요원 등에게 인터넷발송

3. 임업관측사업의 추진 결과

3.1.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표본농가 정비

□ 밤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주산지를 고려하여 지역자문위원 및 통신원 23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최근 3년간 평균 응답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하였음.

□ 표고버섯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30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하였음.

□ 대추·뽕은감

- 지역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표본농가 25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43명(뽕은 감 18명, 대추 25명)을 유지하되 지역, 연령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하였음.

3.2. 중앙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

□ 중앙자문위원 선정

- 임업관측(밤)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밤: 중앙자문위원 14명

- 임업관측(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의 경우,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사정에 밝고 경력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표고버섯: 중앙자문위원 15명
- 임업관측(대추·뽕은감) 중앙자문위원은 기존의 중앙자문위원 수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업계 사정에 밝고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교체하였음.
 - 대추·뽕은 감: 중앙자문위원 16명

□ 중앙자문위원회 운영

-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검증하는 등 관측월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업 종사자, 산림조합중앙회, 산지농협대표, 수출입조합 대표,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였음.
- 중앙자문위원회는 월보 발행 월의 10일을 전후하여 개최하여 발행예정 월보의 내용을 검토하였음.

표 2-1. 2008년도 품목별 임업관측 중앙자문위원

구분	밤(14명)	표고버섯(15명)	대추·뽕은감(16명)
정 책	산림청 목재소득과장 산림청 목재소득과 소득계장 산림청 목재소득과 품목담당자	산림청 목재소득과장 산림청 목재소득과 소득계장 산림청 목재소득과 품목담당자	산림청 목재소득과장 산림청 목재소득과 소득계장 산림청 목재소득과 품목담당자
재 배	이관재 (신지식임업인) 김천호 (한국밤재배자협회장) 김학렬 (산청군 산림조합장) 이기호 (순천시 울림회장) 김의충 (소태밤농원 대표)	서홍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심광택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정의용 (전국톱밥표고재배자협회) 김용경 (장흥유치농협)	김영식 (임당대추농장) 박노영 (보은대추연합회장) 손진헌 (밀양대추작목반대표) 박경화 (상주곶감발전협의회) 이상길 (영동감연구회) 임정규 (완주감연합회장) 박성길 (매전감가공연구회)
유 통	양길원 (중부시장 신광상회) 오종성 (부여밤영농조합대표) 서재연 (농협밤전국협의회회장)	김기순 (산림조합중앙회) 고홍천 (농협버섯협의회회장) 이정무 (부농표고) 민중우 (동화청과)	강갑수 (산림조합중앙회) 이준행 (한국농산) 한계선 (동광물산) 양길원 (중부시장 신광상회)
무 역	고재갑 (농림수출입조합) 이창표 (산림조합중앙회)	이 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박진출 (대일상사)	
기 술	황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윤갑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창현 (산림버섯연구소)	조기동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조두현 (상주감시협장)

3.3. 관측월보 발간 부수 및 배포

- 밤, 표고버섯 및 수실류(대추·뽕은감)의 관측월보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월 3,000부와 2,000부를 각각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등의 수요 증가로 밤, 표고버섯은 월 400부씩, 수실류(대추·뽕은감)은 발행 횟수를 1회 늘려 5회로 하고 월 300부씩 늘려 발행하였음.

- 밤: 3,400부 × 7회 = 23,800부
- 표고버섯: 3,400부 × 8회 = 27,200부
- 대추·뽕은감: 2,300부 × 5회 = 11,500부

- 총 발간된 임업관측월보는 62,500부로서 2007년에 비해 9,500부가 증가하였음

표 2-2. 임업관측월보의 월별 품목별 발간부수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밤	-	-	3,400	-	3,400	-	3,400	3,400	3,400	3,400	3,400	-	23,800
표고버섯	-	-	3,400	3,400	3,400	3,400	3,400	-	3,400	3,400	3,400	-	27,200
대추·뽕은감	-	-	-	2,300	-	-	-	2,300	2,300	2,300	2,300	-	11,500
합계	-	-	6,800	5,700	6,800	3,400	6,800	5,700	9,100	9,100	9,100	-	62,500

- 임업관측월보는 흑백에서 전면 칼라로 바꾸었고, 산림청, 지역 산림조합,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주요 기관과 임업관측사업에 참여하는 표본 농가 및 자문위원,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지역 생산자단체 등에게 배포됨.

표 2-3. 임업관측월보의 품목별 배부처

단위: 배부수

배부처	밤	표고버섯	대추·뽕은감
□ 산림청	40	40	40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5	18	23
□ 표본농가	300	300	250
□ 지역산림조합	480	550	374
□ 산림조합중앙회	10	10	10
□ 임업후계자협회	10	10	10
□ 자문위원	258	160	160
□ 지방자치단체	548	980	496
□ 지역단위농협	556	280	200
□ 농업기술센터	-	668	495
□ 임가경제조사 대상자	226	164	87
□ 지역생산자단체	690	100	85
□ 기 타	115	120	70
계	3,400	3,400	2,300

3.4. 임업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관측월보와 연차 전망 등 단기 및 중·장기 관측사업 결과를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의 관측월보를 인쇄하기 편리한 화면으로 개선
 - 홈페이지에 관측월보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및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 본 연구원의 임업관측정보 시스템을 링크하여 바로 임업관측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3.5. 관측결과에 대한 홍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업전망 2008」에서 임산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발표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본 연구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재되었음. 또한 이 발표는 농업전문방송과 YTN 등을 통해 중계되었고 KBS, MBC, SBS 등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음.
- 밤 재배 순회 교육, (사)한국 밤 재배자협회 워크숍을 포함해 표고버섯 연찬회 등에서 주요 교육 자료로서 그리고 홍보자료로서 활용되었음.
- 관측월보의 내용은 발행 월의 20일을 전후하여 한국임업신문, 한국농정, 한국영농신문, 원예산업신문, 농축산신문, 버섯정보신문, 농축유통신문, 전업농신문, 월간 버섯 등 9개 전문지에 게재가 되었음.

3.6. 중장기 관측

- 2008년 농업전망대회(2008.1.)에서 「임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에서 중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음.

3.7. 관측품목 소비자 실태 및 재배자 의식조사

- 관측품목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소비자 실태조사: 표고버섯(2008.8.25~9.3.), 관측월보 10월호에 게재
 - 재배자 의식조사: 밤, 표고버섯, 대추·뽕은 감(2008.11.24~28)

3.8. 해외정보수집관련 모니터요원 확보

- 국내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의 재배 및 시장의 파악을 위해 현지 모니터요원을 확보하고 2008년 9월1~5일 까지 중국 산둥성 일원을 현지 출장하였음
- 주요 내용:
 - 현지모니터 요원: 이기영외 2인(산둥성 수광시 거주)
 - 출장 지역: 산둥성 수광시, 유방시, 일조시, 청주시
 - 출장 내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등 관측품목에 대한 생산 및 가공·유통 실태 조사

3.9. 대추재해보험도입 관련 조사

- 대추재해보험과 관련된 보험 수요, 표준수확량, 표준가격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행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발행하였음.
- 주요 내용:
 - 대추 재배 및 생산·유통 파악
 - 대추 재배 및 생산 현황
 - 대추 유통현황 및 경로 파악
 - 보험수요의 정도
 - 재배면적, 생산금액, 지역 등
 - 표준수확량 산출
 - 생산량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 도출
 - 변수별 표준수확량 산출
 - 표준수확량의 보정
 - 표준가격 산정
 -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 도출
 - 도출된 변수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산출
 - 표준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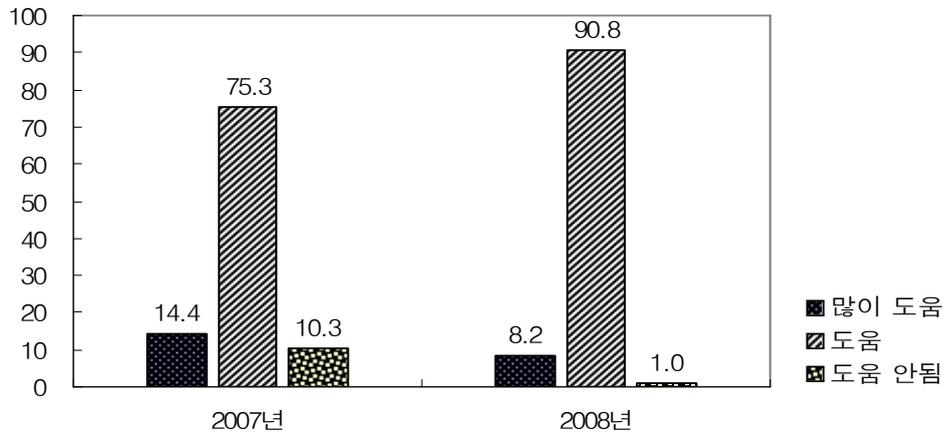
4. 임업관측사업의 만족도 평가

4.1. 의식조사 개요

- 임업관측 월보발간에 대한 재배자 의식조사는 지역자문위원(통신원 포함) 및 표본농가 총 300명(품목별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음.
- 재배자 의식조사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품목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품목별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는 2007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신뢰수준의 변화,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등 주요 특징들에 대해 기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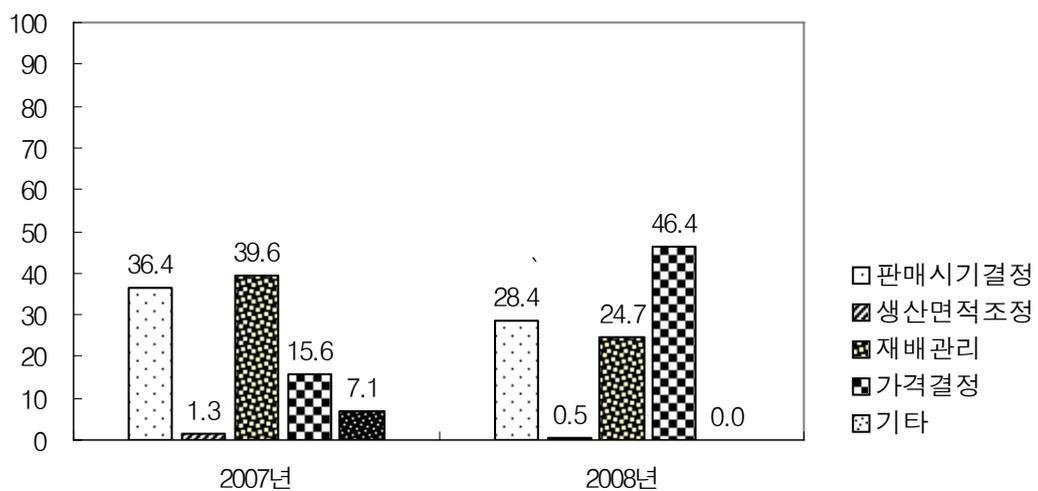
4.2. 밤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2%,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0.8%,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1.0%로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10.3%에서 9.3% 감소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15.5% 증가하여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크게 향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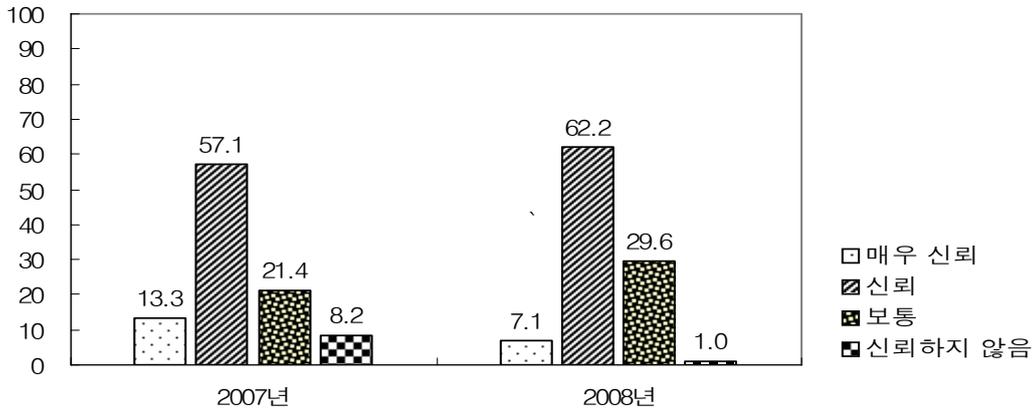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밤)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격 결정이 46.4%로 1순위, 판매시기 결정이 28.4%로 2순위, 재배관리 결정이 12.4%로 3순위, 생산면적 조정이 0.5%로 4순위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관측의 주요수단인 가격 결정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판매시기 결정, 생산면적 조정, 재배관리에 대한 기여율은 다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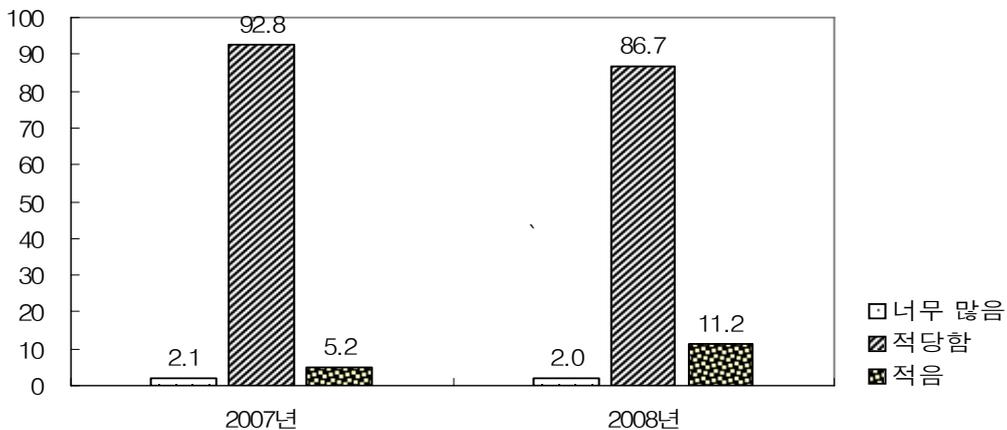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밤)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7.1%, 조금 신뢰가 62.2%, 보통 29.6%, 신뢰하지 않음이 1.0%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신뢰하지 않음이 7.2%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은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밤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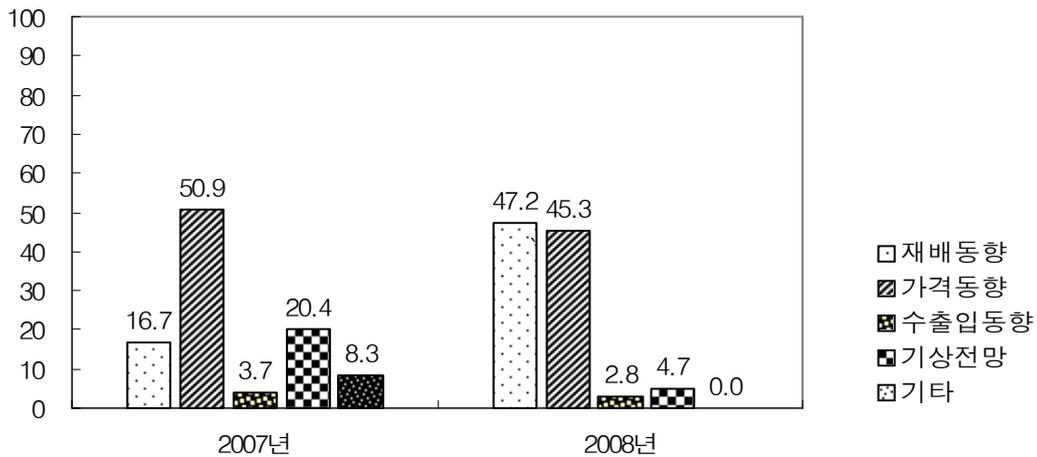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밤)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7회(3,5,7,8,9,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86.7%, 적다는 의견이 11.2%, 너무 많다는 의견이 2.0%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7년과 비교할 때 발간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6.0% 증가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발간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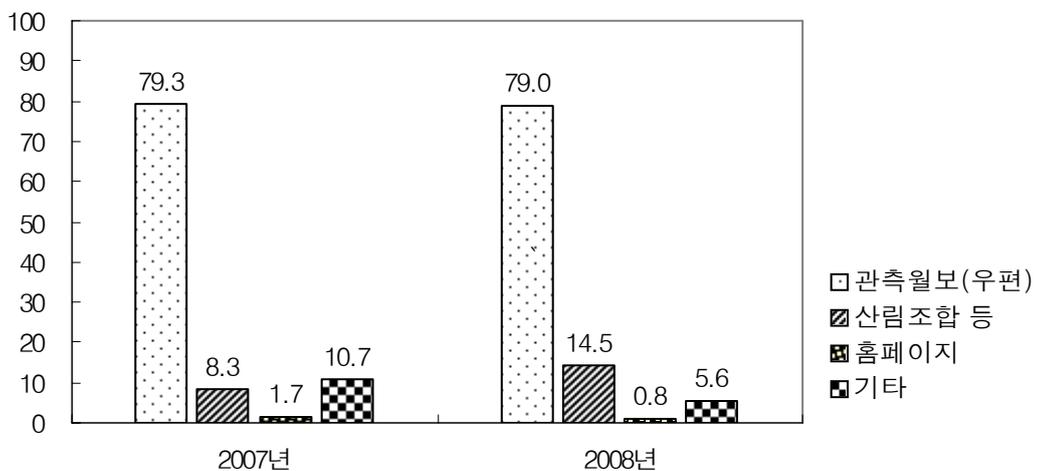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월보(밤)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재배동향이 47.2%, 가격동향이 45.3%, 기상전망이 4.7%, 수출입동향이 2.8%로 재배동향과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생산 임가가 주로 활용하는 부문의 특징은 재배동향에 대한 것으로 무려 3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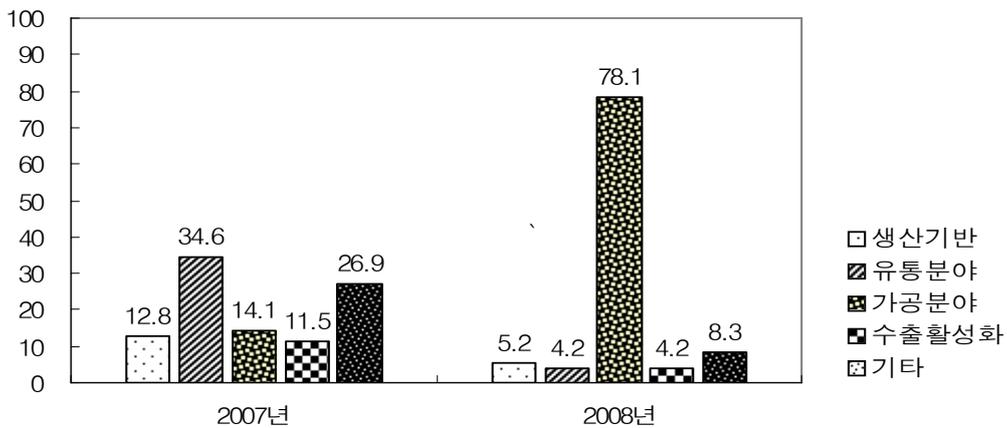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밤 생산 임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79.0%, 지자체, 조합, 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서가 14.5%, 기타 농민신문이 5.6%,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0.8%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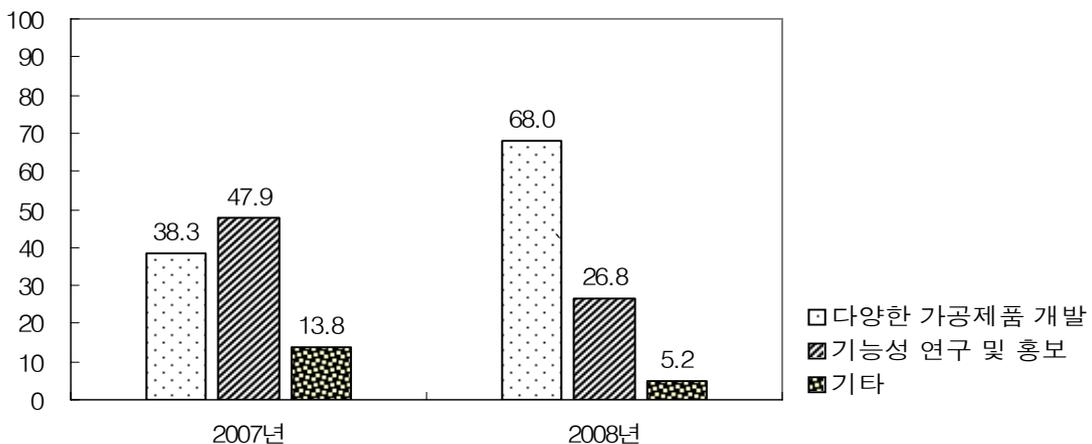
○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가공분야가 78.1%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기타 생산, 유통, 수출 분야 등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나타남.
-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각 분야가 고르게 중시되었던 2007년과는 달리 가공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밤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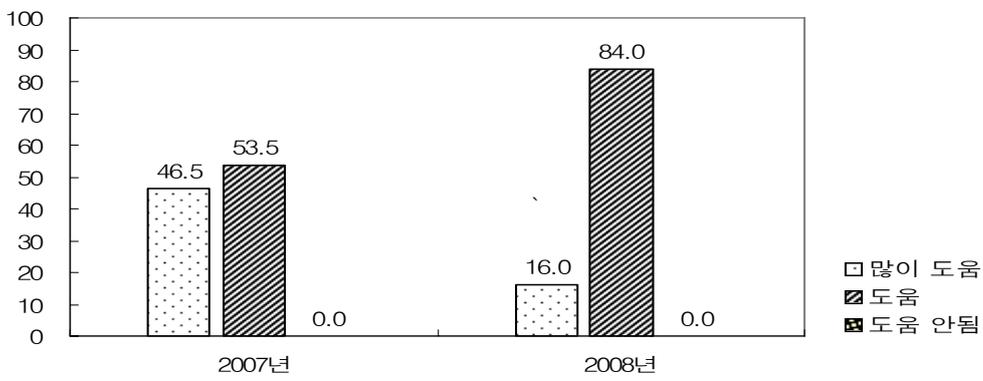
- 밤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68.0%, 밤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26.8%, 기타가 5.2%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29.7%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3. 표고버섯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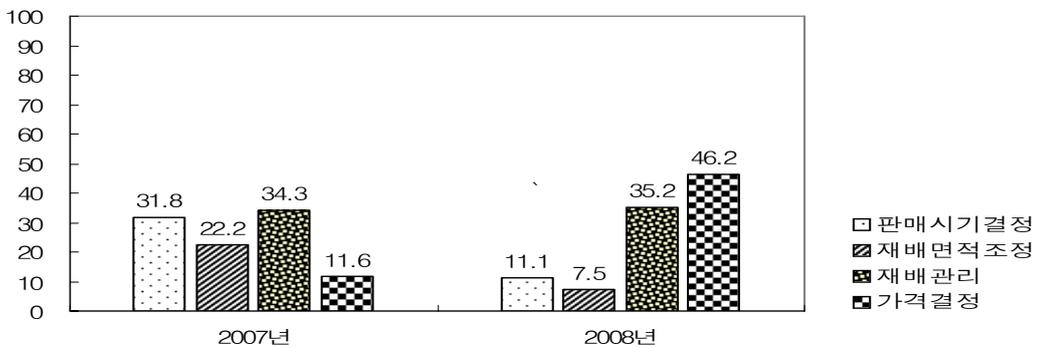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표고버섯)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6.0%,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4.0%, 도움이 안되었다는 의견은 없어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0.5% 감소하였으나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30.5% 증가하여 도움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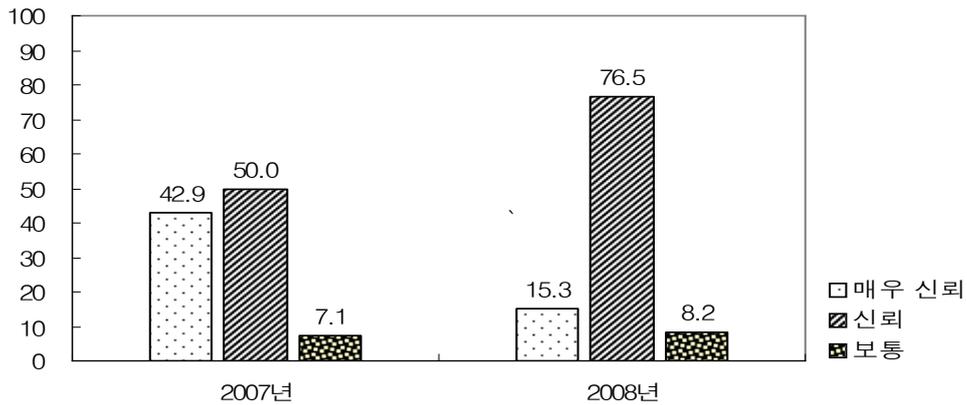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가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가격 결정이 46.2%로 1순위, 재배관리가 35.2%로 2순위, 판매시기 결정이 11.1%로 3순위 재배면적 조정이 7.5%로 4순위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경영의사결정 부문에 대한 관측월보의 기여도는 재배관리와 가격결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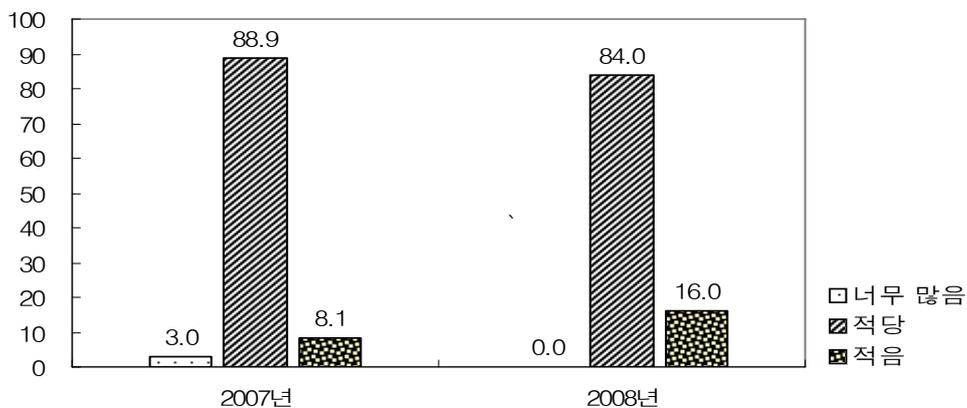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표고버섯)에 대한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가 15.3%, 조금 신뢰가 76.5%, 보통 8.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 비율이 27.6%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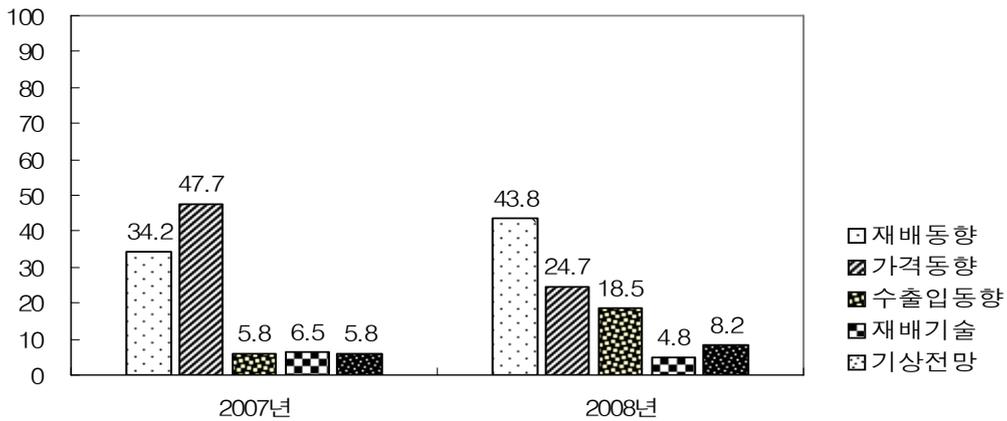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표고버섯)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8회(3,4,5,6,7,9, 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84.0%, 적다는 의견이 16.0%, 너무 많다는 의견은 없어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7년과 비교할 때 발간횟수가 적다는 의견이 7.9% 증가하였으나 발간 횟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발간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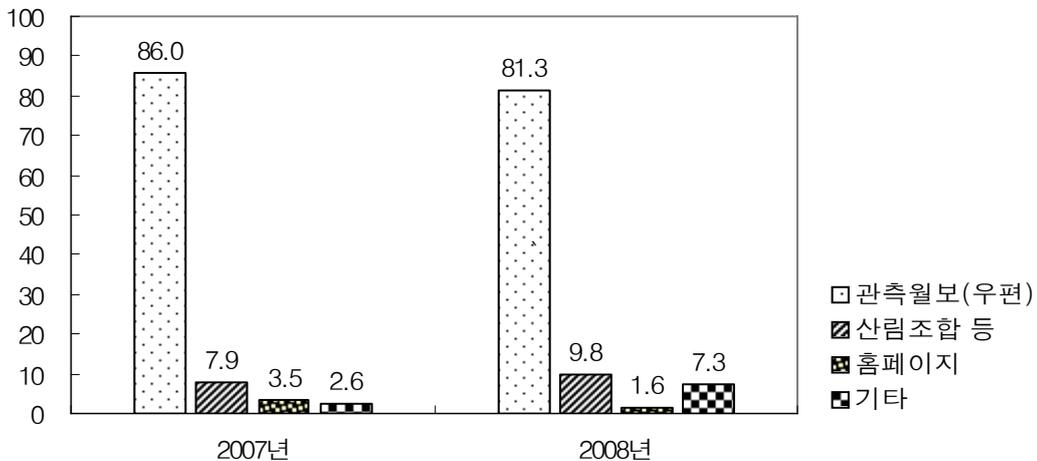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표고버섯)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재배동향이 43.8%, 가격동향이 24.7%, 수출입동향이 18.5%, 기상전망이 8.2%, 재배기술이 4.8%로 재배동향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재배동향, 수출입동향, 기상전망에 대한 활용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가격동향, 재배기술 등에 대한 활용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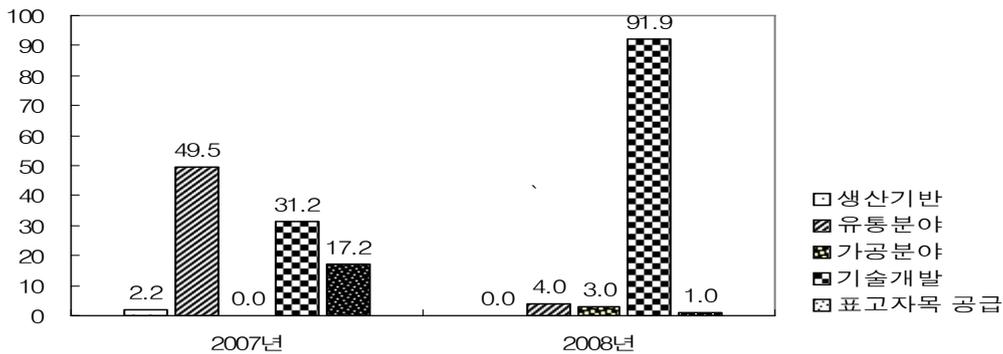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표고버섯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 송부)가 81.3%, 지자체, 조합, 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가 9.8%, 기타 농민신문이 7.3%,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1.6%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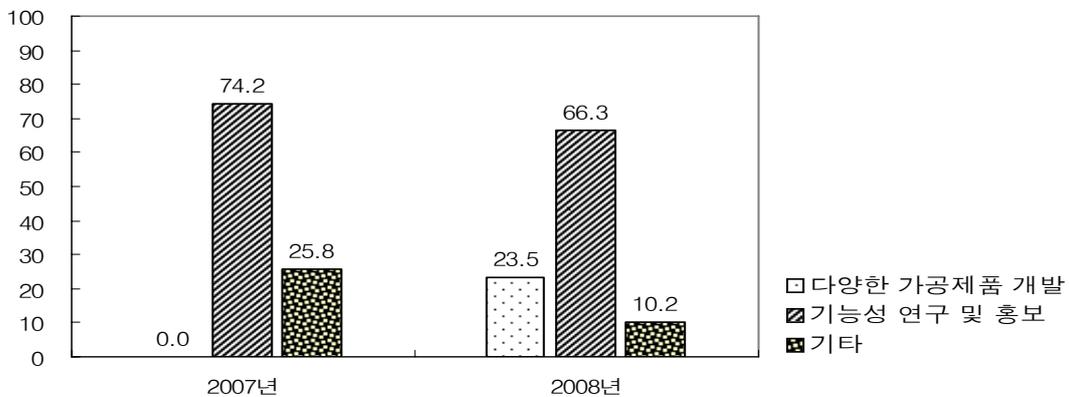
○ 표고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표고버섯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종균 및 재배 등 기술 개발 분야가 91.9%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통, 가공, 표고자목의 공급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나타남.
-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각 분야가 고르게 증시되었던 2007년과는 달리 종균 및 재배 등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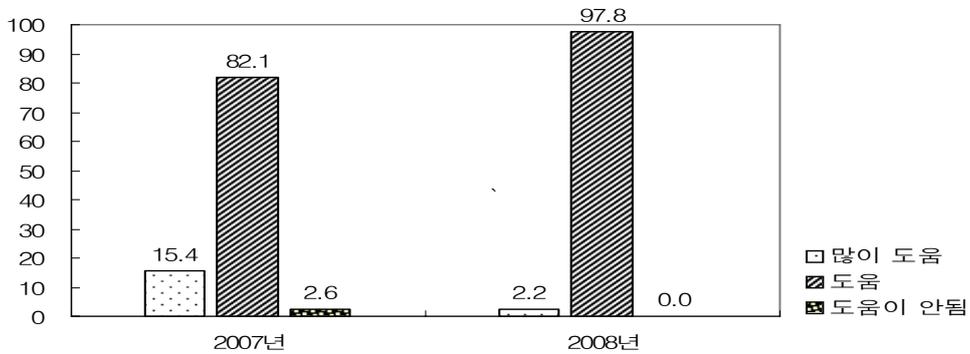
- 표고버섯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표고버섯에 대한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66.3%,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23.5%, 기타 (판로개척 등)가 10.2%로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는 23.5%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4.4. 대추 · 뽕은감 재배자 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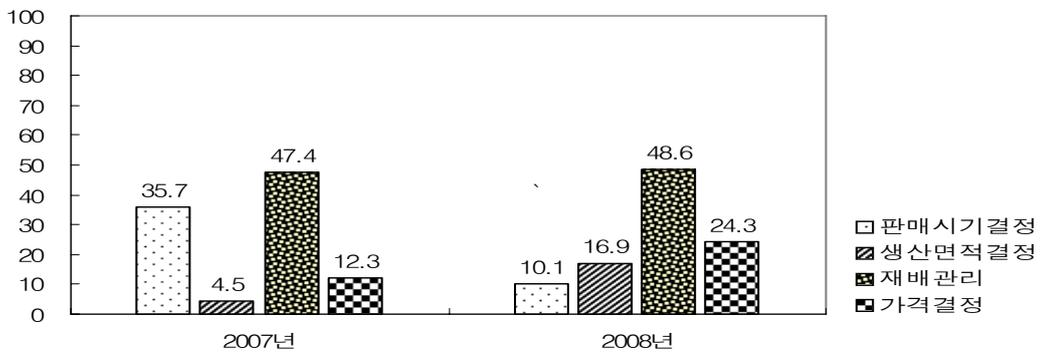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도움 정도

-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업관측(대추 · 뽕은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2.2%,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7.8%,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은 없어 대체로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15.7% 증가했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어 전체적인 도움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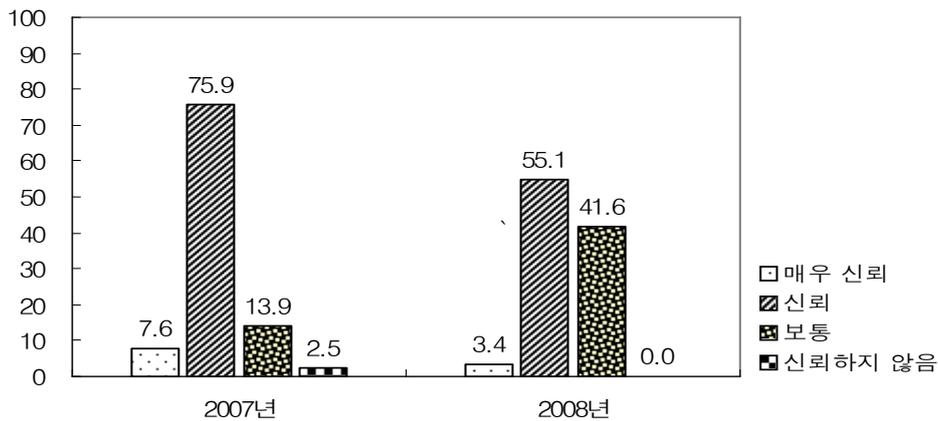
○ 경영 의사결정 시 기여 부문

- 관측정보(대추 · 뽕은 감)가 경영 의사결정 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떠한 부문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추 · 뽕은 감 재배관리가 8.6%로 1순위, 가격 결정이 24.3%로 2순위, 생산량 및 면적 조정이 16.9%로 3순위, 판매시기 결정이 10.1%로 4순위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생산량 및 면적 조정, 재배관리, 가격 결정에 대한 기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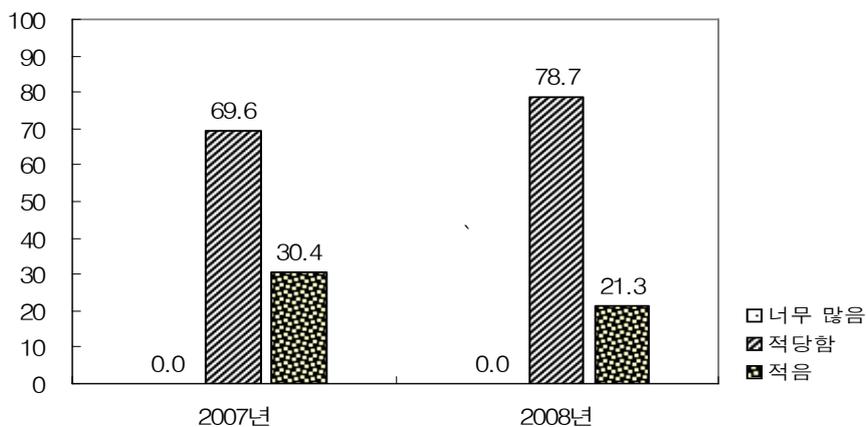
○ 관측정보의 신뢰수준

- 관측정보(대추·뽕은감)에 대한 신뢰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신뢰가 3.4%, 조금 신뢰가 55.1%, 보통 41.6%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매우 신뢰가 4.3% 감소, 조금 신뢰가 20.8%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관측사업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대추·뽕은감 재배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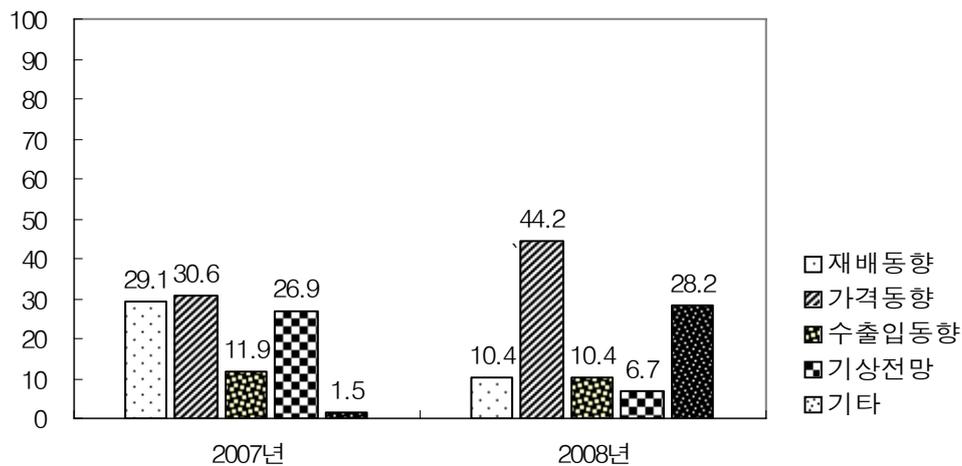
○ 관측월보의 발간횟수

- 관측월보(대추·뽕은감)의 발간횟수에 있어서는 현행 5회(4,8,9,10,11월)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7%, 적다는 의견이 21.3%, 너무 많다는 의견은 없어 전반적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 2007년과 비교할 때 적당하다는 의견이 9.1% 증가하였는데 이는 발간횟수를 4회에서 5회로 늘린 결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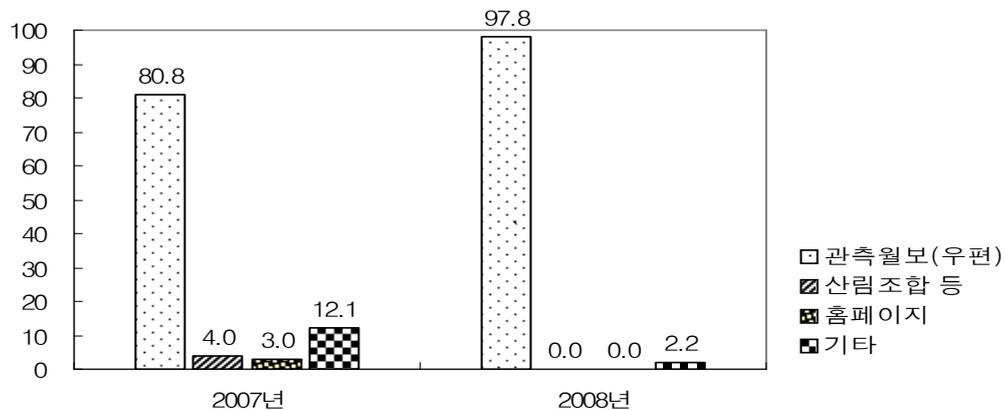
○ 관측월보 내용 중 주요 활용 부문

- 관측정보(대추·뽕은감) 내용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가격동향이 44.2%, 전체적인 전망 28.2%, 재배동향과 수출입동향이 각각 10.4%, 기상전망이 6.7%로 가격동향에 대한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생산 임가가 주로 활용하는 부문은 가격동향과 전체전망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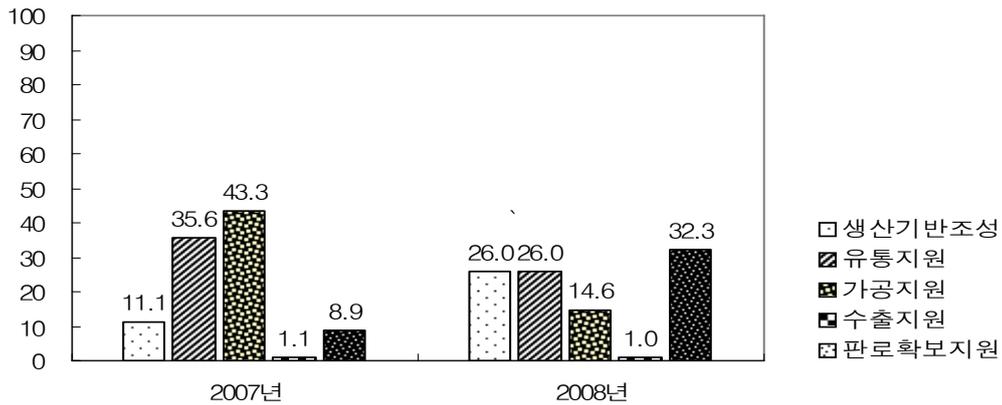
○ 관측월보의 정보 접근방법

- 현재 대추·뽕은감 생산농가에서 관측정보를 접하는 방법으로는 관측월보(우편송부)가 79.3%, 기타 농민신문이 12.1%, 지자체, 조합, 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서가 4.0%, 산림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1.7%로서 주로 농경연의 우편송부에 의한 월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우편송부에 대한 의존도가 17.0%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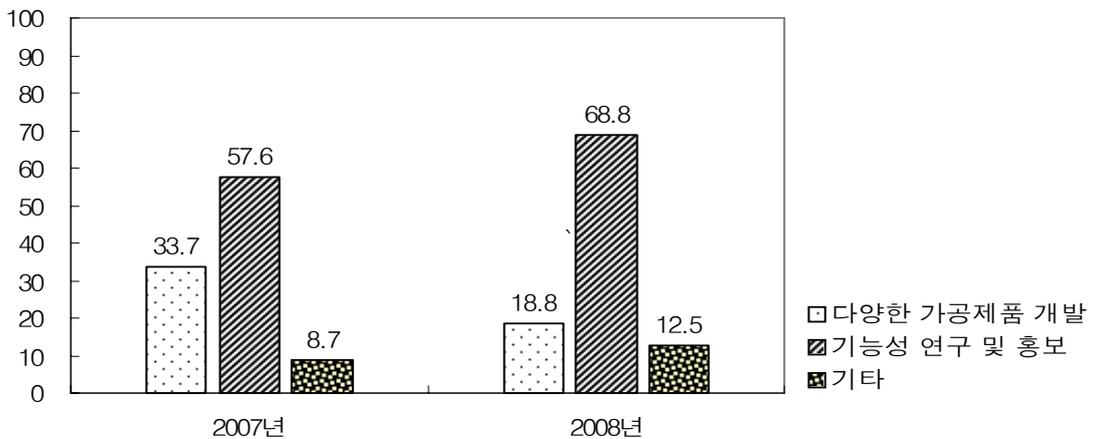
○ 대추·뽕은 감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대추·뽕은 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중 시급한 분야로서 판로확보지원이 32.3%로 1순위, 생산기반조성과 유통지원이 26.0%로 공동 2순위, 가공지원이 14.6%로 4순위, 수출지원이 1.0%로 5순위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생산기반조성과 판로확보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는 각각 14.9% 23.4% 증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대추·뽕은감 소비확대를 위한 추진 정책

- 대추·뽕은감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에 있어서는 기능성 연구 및 홍보가 68.8%,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18.8%, 기타(판로개척, 직거래 등)가 12.5%인 것으로 나타남.
- 2007년과 비교할 때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다는 기능성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수요가 11.2%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정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4.5. 재배자의 대정부 건의 사항

4.5.1. 밤

-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 다양한 밤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 밤 작업로 등 생산기반 지원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변화
-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및 품종 개발
- 친환경재배기술 보급 및 확대
- 노령화 등 임업구조 변화의 대응책 강구

4.5.2. 표고버섯

- 우량종균 개발
- 병충해 방제 기술 개발
- 가격 안정화 및 소비 촉진
- 수입 원산지 표시 강화
- 안정적인 표고자목 공급 및 톱밥재배 지원 강화
- 기술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
- 가공 산업 육성 및 수출단지 조성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직거래 활성화 등 판로개척 다양화

4.5.3. 대추·뽕은 감

- 직거래 등 판로개척 다양화
- 생산기반시설 지원 확대
- 소비자 홍보활동 지원
- 가격 안정화
-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
- 유통정보 및 유통구조 개선
-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수입 원산지 표시 철저

제 3 장

2009년도 임업관측사업 추진 계획

1. 대상 품목 및 내용

□ 대상 품목 및 금액

- 대상품목: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 감
- 금액: 4억원

□ 관측 내용

- 품목별 월별 작황 및 재배 동향
- 품목별 월별 출하와 저장, 가격 동향과 전망
- 품목별 생산지와 소비지 시장 동향
- 품목별 수출과 수입 동향
- 품목별 해외시장 동향
-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2. 세부 추진계획

2.1. 추진 목표

- 임업관측 사업의 내실화
- 임업관측 정보의 폭넓은 분산체계 구축

2.2. 추진 일정

□ 밤

- 준비작업: 2009년 1~2월
- 월보발간: 2009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간일정: 격월(3,5,7,9,11월) 15일 발행하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8, 10월은 속보 발간
 - 발행부수: 3,4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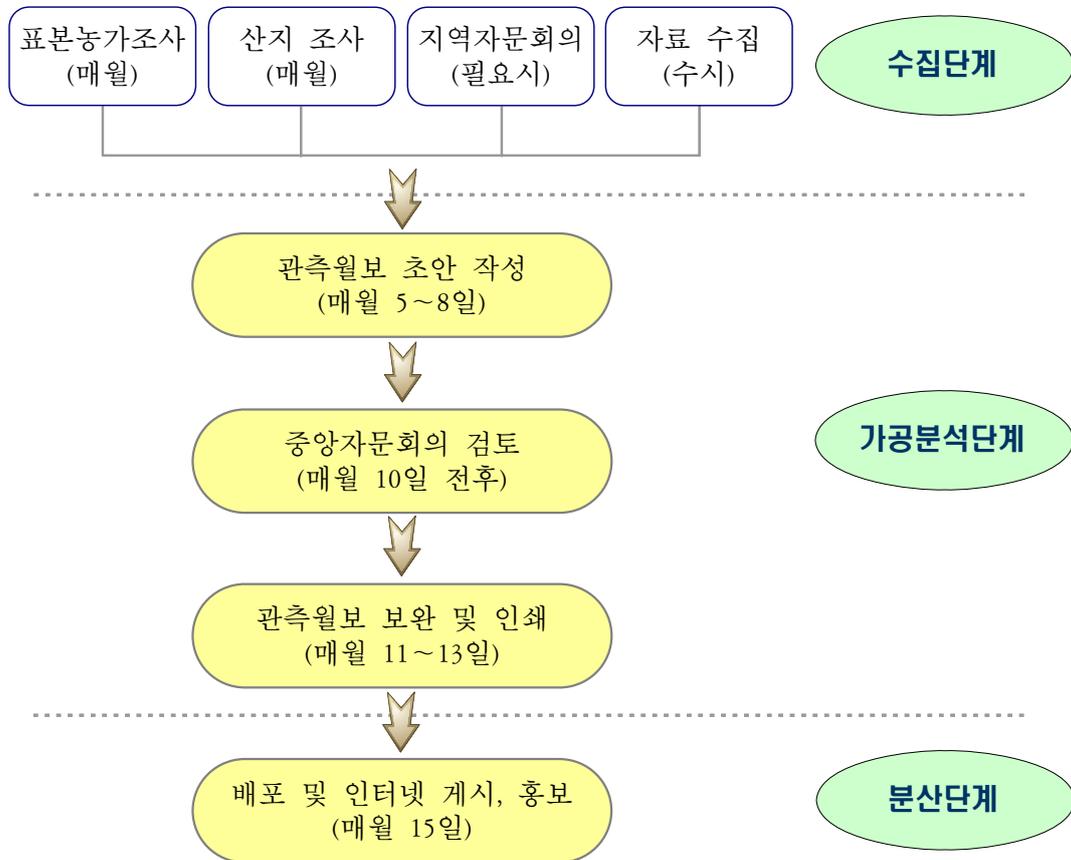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09년 1~2월
- 월보발간: 2009년 3월부터
- 관측월보 발간일정 및 부수
 - 발행일정 : 매월(12, 1, 2, 8월 제외)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 3,400부

□ 대추·뽕은 감

- 준비작업: 2009년 1~3월
- 월보발간: 2009년 4월부터
- 관측월보 발행일정 및 부수
 - 발행일정: 품목 특성에 따라 4, 8, 9, 10, 11월 15일에 발행
 - 발행부수: 4,600부(대추 2,300부, 뽕은 감 2,300부)

2.3. 임업관측사업 추진 체계



2.4. 자문위원 및 표본농가 정비

□ 밤

- 준비작업: 2009년 1~2월
- 중양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 20~25명을 유지하되 주산지,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고버섯

- 준비작업: 2009년 1~2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30명 내외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 대추·뽕은감

- 준비작업: 2009년 1~3월
- 중앙자문위원
 -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각각 15명 내외 위촉하되 지역과 연령, 학식, 현실파악 능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 표본농가 및 지역자문위원
 - 표본농가 300호(대추 150호, 뽕은 감 150호, 예비농가 50호 포함), 지역자문위원은 20명씩 총 40명 내외를 유지하되 지역, 연령, 재배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체 및 보완

3. 임업관측사업의 내실화 추진계획

□ 대추·뽕은 감의 분리를 통한 신뢰성제고 추진

- 기존에 수실류로 하여 대추·뽕은 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좀 더 자세하고 충실한 내용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산지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 품목에 대한 관측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대추와 뽕은 감을 분리하여 재배 및 생육동향, 가격, 수출입 및 각종 유용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품목별 지역 표본농가 수, 통신원 수, 자문위원 수를 각각 늘리고 중앙자문위원회의 개최도 분리하여 운용하고자 함

□ 소비자 실태조사 강화

- 관측품목 임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선호도 및 구매패턴 등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방화에 대비한 대응방향 모색 및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해외시장조사 및 모니터요원 운용을 통한 해외정보수집능력 강화

- 중국과 일본은 관측품목의 핵심 생산지이자 소비지이며 수입 및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국가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 중국, 일본에 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모니터요원을 운영토록하며 산림청과 함께 품목별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일본: 유학생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모니터요원 확보 및 활용
 - 중국: 산동성 모니터요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활용
 - 실태조사: 품목별 주요 생산지 및 소비지에 대한 실태조사

□ 전문가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전문기술인,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품목별 재배기술과 병해충방제 관련부문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월보발간 시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재배농가에 대한 카운슬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제 4 장

임산물수급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³

1. 밤

1.1. 국제 여건 변화

1.1.1. 세계 생산 및 무역 동향

- 2005년 세계의 밤 생산량은 약 135만 톤으로 2001년부터 매년 8.6%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중국은 연평균 18.8%의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세계 밤 생산량

단위: 천 톤, %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증감률 (05/01)
세 계	970	1,057	1,112	1,252	1,353	8.6
한 국	90	72	60	72	76	-5.5
중 국	615	702	797	923	1,032	18.8
터 키	50	50	48	48	50	0.0
이탈리아	60	50	50	50	52	-4.7
기 타	155	183	157	159	143	-2.7

주: 중국의 자료가 FAO와 차이를 나타내므로 중국 임업연감을 이용하여 재구성.
 자료: FAO, 임업통계연보, 『中國林業年鑑』.

³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한 「농업전망 2008」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 같은 기간 전 세계 밤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76%로 늘어난 반면 한국의 비중은 9.3%에서 5.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제일의 수출국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의 수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가장 많았던 한국의 대일 수출은 2006년 들어 3천 9백만 달러 감소한 1,178만 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같은 기간 약 6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도 770만 달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만 감소하였고 나머지 국가 간의 수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동아시아 삼국의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2)
한->일	51,257	43,763	17,586	14,795	11,784	9,523	-30.8
한->중	8,886	21,626	21,322	20,720	19,381	16,602	21.5
중->한	585	3,029	6,012	6,701	6,411	2,644	81.9
중->일	38,340	58,758	73,063	71,636	64,571	44,332	13.9
일->중	240	2,351	1,445	888	1,116	1,998	46.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1.1.2. 중국

- 세계 최대의 밤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은 2001년까지도 약 6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5년에는 100만 톤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생산된 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며 수입과 수출은 생산량의 약 1.4%,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수출량은 같은 해 한국 생산량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 주요 생산지는 산둥, 호북, 하남, 하북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하북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2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밤 소비량은 2000년 57만 톤에서 2005년 101만 톤으로 늘어났다. 중국에서 밤은 경제가치가 비교적 높은 견과류의 하나로 농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주요 임산물로 취급되고 있다.

표 4-3. 중국의 밤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	598	599	702	797	923	1,032
수입	2	3	6	10	14	14
수출	31	28	30	32	38	37
소비	569	574	678	775	899	1,009

자료: 中國國家林業局, 「中國林業發展報告」, 2006.

- 중국은 2006년에 4만 3,380 톤의 생밤을 수출하였는데, 2002년부터 연평균 약 10%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다.
 -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하북성, 산둥성, 천진 등으로서 이들 지역의 2006년 수출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일본으로 2002년 전체의 약 69%를 수출하였으나 2006년 들어 그 비중이 33%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으로 대만의 비중이 16.7%에서 17%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02년 전체 수출량의 1.3%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에는 5.8%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9.2%로 나타났다.

표 4-4. 중국의 생밤 수출 동향

단위: 톤,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2)
전 체	29,660	32,369	37,675	37,091	43,379	35,616	10.0
한 국	394	1,518	1,991	1,639	2,530	1,935	59.2
일 본	20,400	18,243	19,317	14,316	14,478	8,808	-8.2
대 만	4,937	6,184	6,951	8,115	7,377	4,910	10.6
태 국	639	1,136	1,148	1,016	1,073	1,363	13.8
아랍에미레이트	140	255	546	1,480	3,083	1,934	116.8
기 타	3,150	5,033	7,722	10,524	14,839	16,666	47.3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냉동밤¹의 경우 한국에서 관세할당제도(TRQ)가 적용되는 생밤이나 깎밤에 비해 관세율이 낮아 한국으로의 수출이 유망한 품목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량 증가율이 24.2%를 보이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수출량의 89%를 차지 하였던 일본의 비중은 2006년 28%로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5년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같은 기간 10%에서 66%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밤 수입 동향을 보면 2006년 약 1만 3,400톤을 수입하여 2002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중국의 냉동밤 수출 동향

단위: 톤,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2)
수출	232	443	406	622	552	523	24.2
한국	23	144	215	41	362	13	99.2
일본	206	248	102	317	155	177	-6.9
기타	3	51	89	264	35	332	84.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특히 2006년 한국으로부터는 전체의 약 95%에 달하는 1만 2,700톤을 수입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3.2%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도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32-6. 중국의 생밤 수입 동향

단위: 톤,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2)
전 체	5,755	9,902	13,529	13,763	13,358	10,851	23.4
한 국	5,504	8,757	12,857	13,163	12,676	9,481	23.2
일 본	173	1,017	487	354	658	865	39.7
기 타	78	128	185	246	24	505	-25.5
한국비중	95.6	88.4	95.0	95.6	94.9	87.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¹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냉동 포장하여 수출하는 밤(08119010, Chestnuts in shell, frozen)을 가리킴.

1.1.3. 일본

- 일본의 밤 생산량은 2006년 1만 4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5.7%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은 생밤의 일부를 수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 수출량은 약 595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 수입량은 생산량보다 많아 2006년 2만 4,900톤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생밤²이 약 89%를 차지하였다. 수입량도 생산량과 같이 2002년~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6%의 비율로 감소하였는데 생밤, 일시저장밤 등이 감소한 반면 통조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일본의 밤 생산 및 수출입 동향

단위: 톤,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	
국내생산량	17,774	16,858	13,908	12,370	14,048	-5.7	
수입	생밤	29,073	25,233	25,207	21,552	22,054	-6.7
	일시저장	1,543	1,399	1,551	713	657	-19.2
	통조림	1,176	1,450	2,032	2,199	2,148	16.3
	소 계	31,792	28,082	28,790	24,464	24,859	-6.0
생산 및 수입	49,566	44,940	42,698	36,834	38,907	-5.9	
생밤수출	173	914	582	366	595	36.2	

자료: 일본 임야청, 특용임산물 생산 동향(2006, 2007). 한국무역협회

- 주요 국가별 제품별 수입액 동향을 보면 생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 감소율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일본 생밤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한국산 생밤은 2006년 들어 38%로 하락하였다.
- 일시저장밤의 경우 한국의 연평균감소율은 더욱 크며 시장점유율도 76%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²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한국에서 구분되는 생밤과 깎밤이 모두 생밤으로 합쳐져 분류되기 시작했다.

- 한국밤은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의 개량종으로서 일본밤과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인 구매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국의 태풍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여 일본 수출가격이 매우 높았던 2003년과 2004년에 한국산 밤에 대한 수입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 일본에는 5가지 주요 품종이 소비되고 있는데 한국밤은 주로 일본밤을 대체하여 감로자용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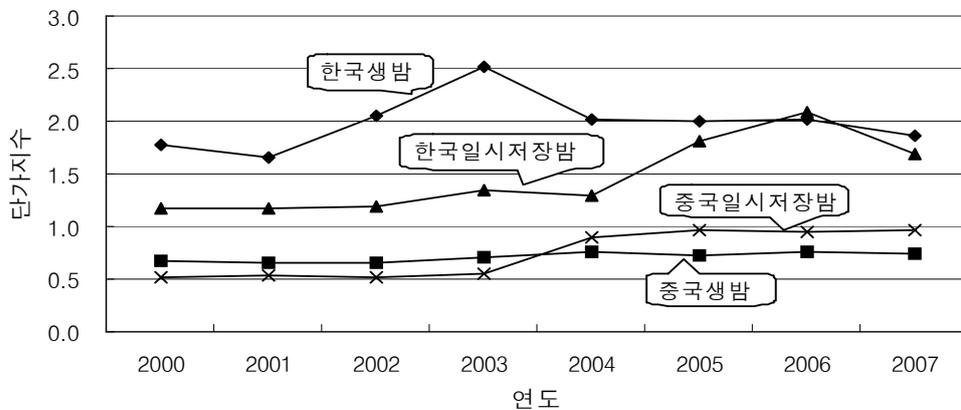
표 4-8. 밤 제품별 국가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엔, %

	제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2)
한국	생밤	5,762 (50.5)	4,762 (39.8)	3,286 (38.5)	3,295 (43.0)	3,029 (37.9)	1662 (43.1)	-14.9
	일시저장	1,003 (85.4)	1,111 (76.0)	294 (35.3)	35 (8.6)	31 (8.5)	22 (9.7)	-58.2
	밤통조림	30 (4.6)	15 (1.8)	3 (0.3)	7 (0.6)	65 (5.7)	59 (8.0)	21.9
중국	생밤	5,626 (49.3)	7,170 (59.9)	5,205 (61.0)	4,341 (56.6)	4,953 (61.9)	2184 (56.6)	-3.1
	일시저장	171 (14.6)	350 (24.0)	540 (64.7)	374 (91.4)	328 (91.5)	200 (90.3)	17.7
	밤통조림	477 (75.1)	575 (69.9)	727 (70.5)	799 (71.7)	747 (64.8)	392 (52.8)	11.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제품의 전체 수입액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1. 일본 시장의 국가별 제품별 수입 단가지수 비교



- 일본 시장에서 한국밤과 중국밤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해 보기 위해 일본 수입 단가지수를 계산해 보면 한국의 생밤과 일시저장밤 등은 평균단가인 1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밤의 경우 생밤은 0.7~0.8의 안정된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시저장밤은 최근 들어 1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국내 수급 동향

1.2.1. 생산 및 소비

- 밤을 재배하는 임가수는 2005년 총 2만 1,465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이 재배하는 면적은 4만 1,045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재배 임가 가운데 전업임가의 비율이 전체의 5.3%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이 재배하는 면적은 전체의 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업이외의 수입이 임업수입보다 많은 2종겸업 임가가 전체의 약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밤 재배 임가수 및 재배면적 현황, 2005

	합계	전업	겸업		
			소계	1종겸업	2종겸업
임가수(호)	21,465	1,136	20,329	6,207	14,122
면적(ha)	41,045	2,727	38,318	15,532	22,786

주:전업임가란 지난 1년간 임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임가를 말함. 겸업 임가란 지난 1년간 임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임가를 가리키며, 1종겸업임가란 임업 수입이 임업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말함.

자료: 임업총조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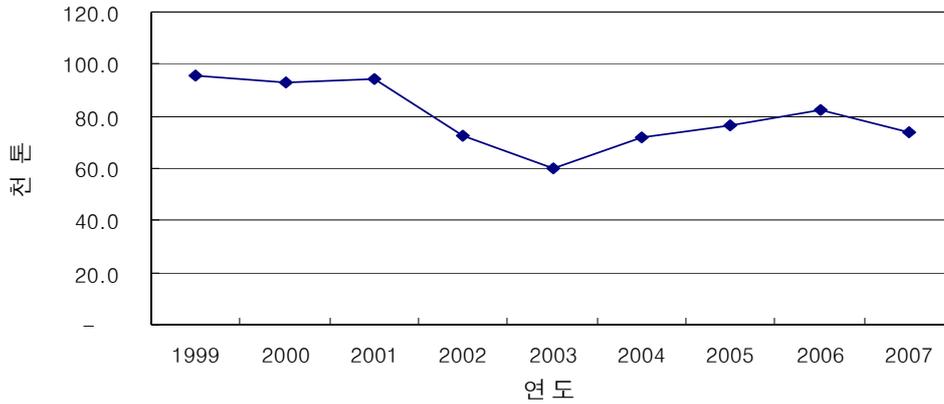
- 전체 재배자의 약 61%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구조가 매우 고령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 2007년 국내 밤은 과실 비대기의 잦은 비와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 평년⁴에 비해 약 8.6% 감소한 7만 4천 톤 정도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³ 임업총조사(2005).

⁴ 태풍의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한 최근 4개년 간의 평균을 가리킴.

- 밤의 생육 기간 착과는 많았지만 과실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생종과 만생종의 품질이 평년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밤 생산량 추이



주: 2007년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임업통계연보(산림청), 임업관측월보(농경연).

- 2007년 새로운 밤 재배지의 조성 형태를 살펴보면, 신규로 조성된 면적은 약 176ha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69% 감소하였으며 보식이 600ha, 갱신이 245ha를 차지하였다. 이 면적은 전년도 전체 조성면적에 비하면 약 3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의 신규 조성면적이 71%, 9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묘목대지원 등 국가의 보조 철폐뿐만 아니라 수출부진, 수매가격 하락, 노동력 부족 등 밤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밤 재배지 조성 형태별 면적, 2007



자료: 주산지 표본농가 및 통신원 조사치(2007. 4. 25~5. 8).

- 최근 7년간 지역별 밤 재배지 조성 형태를 살펴보면 신규 조성 면적이 전체의 약 51%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충청도의 비율이 전체 신규 조성면적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충청도의 생산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노령화된 남부지방의 밤나무와 비교하면 충청도의 생산량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0. 밤 재배지 조성형태별 면적, 2001~07

	신규	갱신	보식
충청도	6,184	680	501
경상남도	551	2,407	1,584
전라도	748	1,435	738
합계	7,483	4,522	2,822

단위: ha

자료: 산림청내부자료(2001~2005), 임업관측월보(농경연: 2006, 2007).

- 밤 소비는 수출용이 25~30% 정도 차지하며, 국내 소비는 명절이나 혼인, 제사 등 각종 제수용품이 약 18~20%, 식자재용이 15%, 과자, 통조림, 이유식 등 가공용이 12~15%, 군밤용이 3~5%, 기타 12~1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⁵.
- 밤의 일인당 소비 추세를 보면 1990년 1.1kg이었던 소비량이 1997년 최고인 2.2kg을 기록한 후 점차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kg까지 감소하였다.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6kg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1.2.2. 유통 및 가격

- 조생종을 시작으로 8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수확되는 밤은 대부분 지역 단위농협, 산지수집상, 산림조합 등을 통해 출하되며, 나머지 약 4% 정도만 생산자가 직접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 밤(상품)의 생산지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의 가격은 2006년과 달리 평년가격과 매우 유사한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월 이전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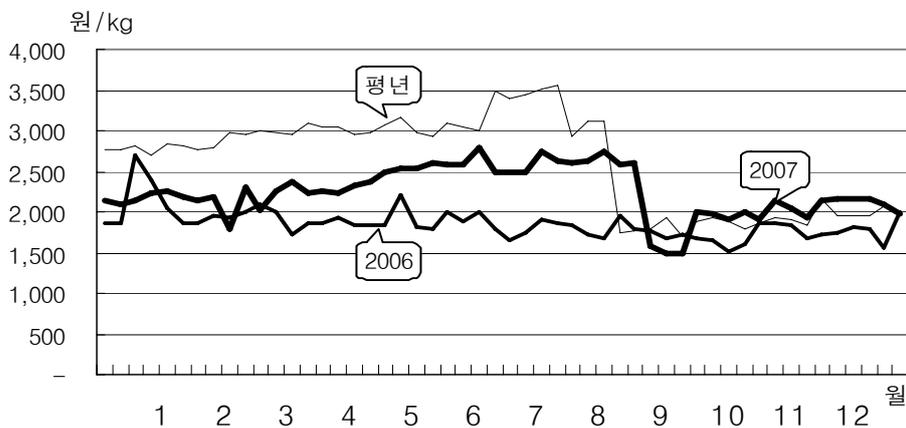
⁵ 이상민. 2006. 「밤의 수급 전망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R528. p.11.

⁶ 장우환. 2003. 「밤나무 재배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3- 29. p38.

격 수준은 평년에 비해 낮게 형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평년 밤 가격의 변화를 보면 출하기인 8월부터 하락하여 9월에 가장 낮게 형성되며, 이후 점차 상승하여 7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2007년의 경우 평년에 비해 약간 늦은 9월에 가격이 하락하여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평년에 비해 2006년의 가격이 연중 낮게 형성되었던 것은 생산량이 늘어났으나 수출량이 감소하여 국내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에는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평년의 추세를 따랐다.

그림 4-4. 밤 생산지 월별 가격 변화 동향



자료: 임업관측월보(농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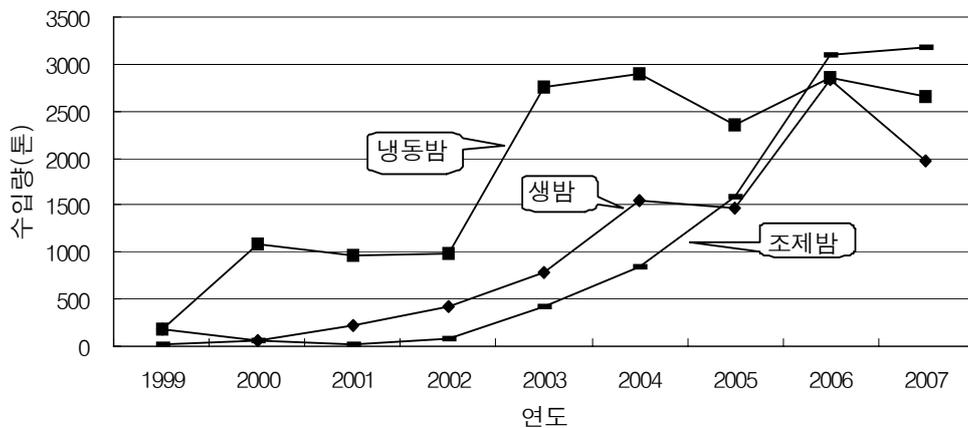
1.2.3. 수출입

- 밤 제품별 수입 추이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제밤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최근 대기업의 완제품 수입에 힘입어 2006년에는 냉동밤의 수입 물량마저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과용 및 요식용 재료로 이용되는 냉동밤의 경우 생밤에 비해 관세가 낮아 2002년 이후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내산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수입량 증가가 주춤한 상태이다.
- 관세할당제도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생밤의 경우 2006년 수입량이 2,830톤으로 시장접근물량(MMA) 2,170톤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들어

수입량은 다시 MMA 물량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깐밤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과거와 달리 2002년 이후에는 생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요 원인은 수출경로의 변경을 들 수 있는데, 깐밤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신 생밤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가공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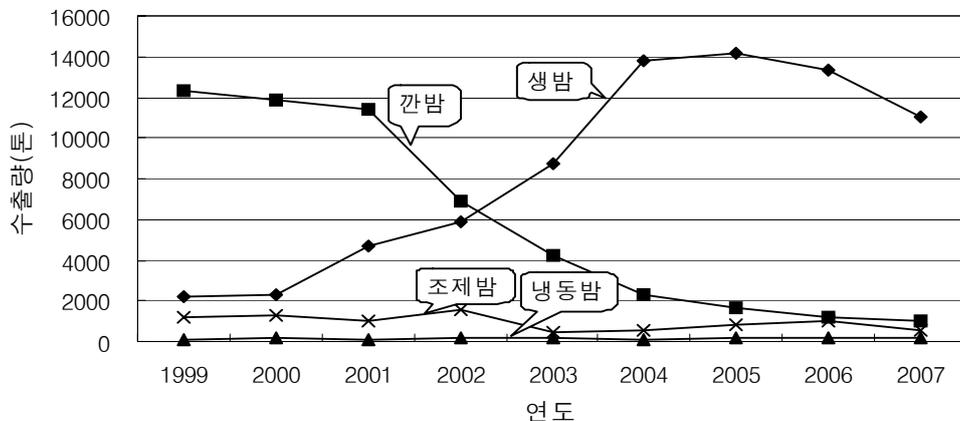
그림 4-5. 밤 제품별 수입 동향



주: 2007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결국 일본 내의 밤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 생산으로는 수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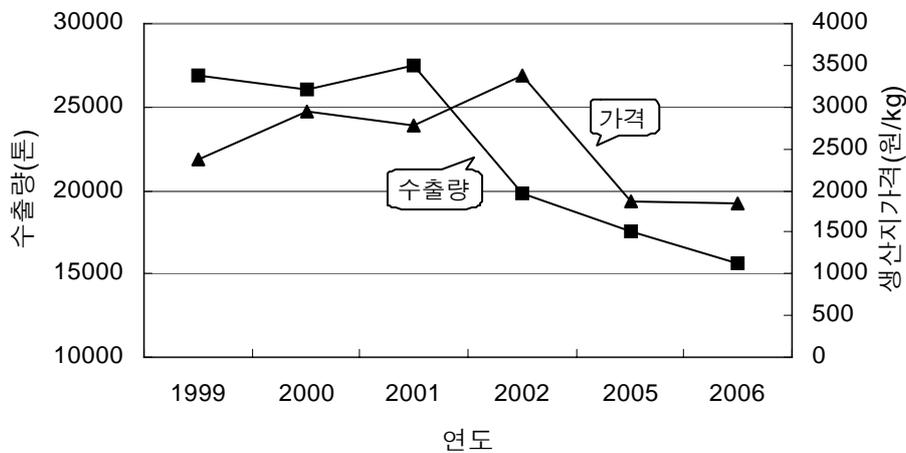
그림 4-6. 밤 제품별 수출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 간밤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판매처를 보장받지 못한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밤의 수출은 국내 과잉 공급을 방지하여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출 확대는 생산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아래 그림은 태풍으로 인해 밤 생산량과 가격이 급변했던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한 수출량(생밤환산무게)과 국내 생산지가격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의 수출량과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지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림 4-7. 밤 수출량과 생산지가격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림조합중앙회.

1.3. 수급 전망

- 연속된 태풍 피해로 감소했던 밤 생산량이 서서히 회복하여 2006년 들어 8만 2천 톤에 이르렀으나, 2007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7만 4천 톤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하여 2008년에도 약 7만 5천 톤 가량을 생산하고 2013년에도 약 7만 7천 톤 가량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배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이와 함께 생산량이 줄어들어 2018년에는 약 6만 5천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났던 조제밤과 냉동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2013년 수입량은 9,700톤, 2018년 수입량은 약 1만 1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밤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의 수요 감소로 인해 줄어들었던 밤 수출량은 2008

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격 유지를 위해 생밤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수출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3년에 약 1만 5천 톤, 2018년에는 1만 7천 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결국 생밤에 대한 국내 소비량은 2018년 약 5만 9천 톤으로 줄어들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1.16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1. 밤 수급 전망(생밤 환산 기준)

단위: 톤

	2006	2007	전망		
			2008	2013	2018
공급	92,685	83,173	83,601	79,354	75,241
국내생산	82,450	74,000	75,370	69,661	64,295
수입	10,235	9,173	8,231	9,693	10,945
수요	92,685	83,173	83,601	79,354	75,241
국내소비	75,740	68,191	69,266	64,738	58,683
수출	16,945	14,982	14,335	14,616	16,558
1인당 소비량(kg)	1.65	1.20	1.40	1.29	1.16

주: 2007년 생산량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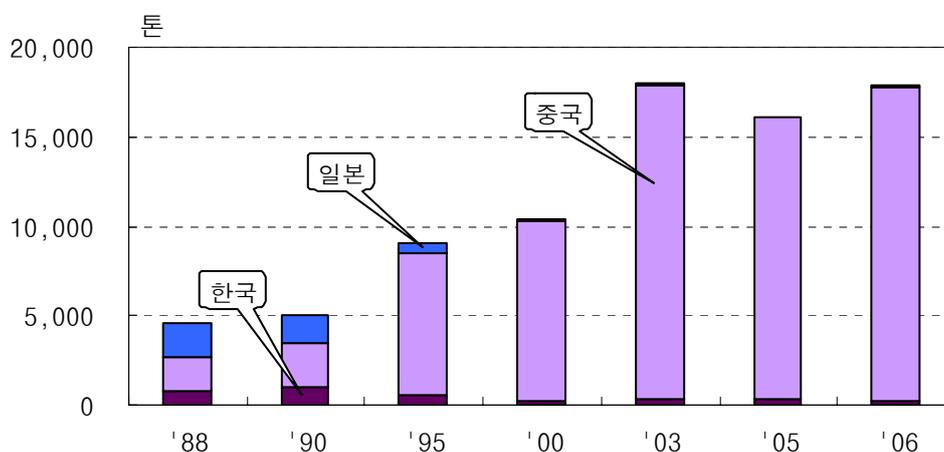
2. 표고버섯

2.1. 국제 여건 변화

2.1.1. 세계 무역 동향

- 표고버섯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화교권 국가들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표고버섯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1990년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이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국이었으나 중국이 농업정책을 전환하고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속하게 늘어 세계 표고버섯 수출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표고버섯 수출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림 4-8. 주요 생산국의 건표고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국제 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의 가격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표고버섯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수입국에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어 중국의 표고버섯 수출은 약화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2.1.2. 중국

- 중국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2005년 약 246만 톤이며 2001년부터 연평균 약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주산지는 복건(福建)성, 절강(浙江)성, 하남(河南)성으로 총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표 4-12. 중국의 성(省)별 표고버섯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합계	복건성	절강성	하남성	호북성	섬서성	기타
2001	생산량	2,072	600	376	259	170	144	523
	(비율)	(100.0)	(29.0)	(18.1)	(12.5)	(8.2)	(7.0)	(25.2)
2002	생산량	2,214	620	378	304	187	101	624
	(비율)	(100.0)	(28.0)	(17.1)	(13.7)	(8.4)	(4.6)	(28.2)
2005	생산량	2,460	640	380	349	204	58	725
	(비율)	(100.0)	(26.0)	(15.4)	(14.2)	(8.3)	(2.4)	(29.5)
연평균 증감률		4.4	3.2	0.5	14.8	9.1	-42.6	16.2

주: 2005년도 자료는 월간버섯 2006년 7월호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자료: 中國包裝和食品機械總公司, 『中國農產品加工業年監』, 2003.

- 중국의 생표고 수출량은 2006년 2만 2,576톤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75.4%), 미국(14.1%), 한국(3.1%) 등이다. 일본에 대한 수출량은 2003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잔류 농약 문제의 발생으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⁷의 도입이후 일부 중국산 생표고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는 등 대일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다.
- 건표고 수출량은 2006년 1만 7,599톤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40.9%), 홍콩(21.3%), 한국(8.0%), 미국(5.3%) 등이다. 한국에 대한 건표고 수출량은 2003년 65톤에서 2006년 710톤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⁷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며, 일본은 이를 2006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표 4-13. 중국의 생표고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3)
합계	24,320 (100.0)	32,265 (100.0)	26,409 (100.0)	22,576 (100.0)	18,785 (100.0)	-2.4
일본	19,640 (80.8)	27,859 (86.3)	21,576 (81.7)	17,016 (75.4)	9,164 (48.8)	-4.7
미국	1,652 (6.8)	2,549 (7.9)	2,657 (10.1)	3,190 (14.1)	2,723 (14.5)	24.5
한국	65 (0.3)	201 (0.6)	351 (1.3)	710 (3.1)	274 (1.5)	121.9
기타	2,963 (12.2)	1,656 (5.1)	1,825 (6.9)	1,660 (7.4)	6,624 (35.3)	-17.6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동부 연안지역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출은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며 국내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표고버섯의 생산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4. 중국의 건표고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1~11)	연평균증감률 (06/03)
합계	17,548 (100.0)	24,678 (100.0)	24,226 (100.0)	17,599 (100.0)	17,912 (100.0)	0.1
일본	6,145 (35.0)	7,881 (31.9)	7,667 (31.6)	7,200 (40.9)	6,169 (34.4)	5.4
홍콩	6,602 (37.6)	8,265 (33.5)	0 (0.0)	3,748 (21.3)	4,536 (25.3)	-17.2
한국	597 (3.4)	1,165 (4.7)	1,302 (5.4)	1,406 (8.0)	1,250 (7.0)	33.0
미국	779 (4.4)	1,478 (6.0)	1,294 (5.3)	938 (5.3)	1,025 (5.7)	6.4
기타	3,425 (19.5)	5,889 (23.9)	13,963 (57.6)	4,307 (24.5)	4,932 (27.5)	7.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1.3. 일본

- 일본의 생표고 생산량은 근래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6년의 생산량은 6만 6,349톤으로 2002년부터 연평균 0.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내 생산량의 증가는 2000년 JAS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강화로 인해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중국산 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건표고의 생산량은 2006년 3,861톤으로 생표고의 소폭 증가세와는 달리 2002년부터 연평균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표고의 수입량은 2006년 1만 6,395톤으로 전년 대비 27.2% 급감하였으며 건표고의 수입량은 7,949톤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산 표고버섯에서의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기 때문이다⁸.
 - 생표고의 소비량에 대한 수입 비중은 2002년 30.4%에서 2006년 19.8%로 낮아졌으며 건표고의 경우 약 65%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4-15. 일본의 표고버섯 수급 동향

단위: 톤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
생 표 고	생 산	64,442	65,363	66,204	65,186	66,349	0.7
	수 입	28,148	24,896	27,205	22,526	16,394	-12.6
	소 비	92,590	90,259	93,409	87,712	82,743	-2.8
건 표 고	생 산	4,449	4,108	4,088	4,091	3,861	-3.5
	수 입	8,633	9,137	8,844	8,375	7,949	-2.0
	수 출	118	79	73	85	76	-10.4
	소 비	12,965	13,166	12,859	12,381	11,734	-2.5

자료: 日本 林野廳.

- 일본의 표고버섯 소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가구당 표고버섯 구입량과 지출액 모두 감소하였는데 만가닥, 잎새, 새송이 등 대체 버섯류의 증대와 함께 표고버섯의 독특한 향, 건표고의 불편한 조리과정 등 젊은 소비층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⁸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내 농수산물유통정보<일본 표고버섯 동향>.

표 4-16. 일본의 1세대당 표고버섯 구입량 및 지출액

단위: g, 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감률
생표고	수량	2,007	1,761	1,677	1,758	1,688	-4.2
	금액	2,187	2,085	1,984	2,008	1,918	-3.2
건표고	수량	120	107	102	99	113	-1.5
	금액	647	592	609	582	606	-1.6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ポケット食品統計』, 2006.

- 최근 자국산 표고버섯의 가격은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시장에서의 중국산 건표고의 수입 단가는 품질 향상 요구에 따른 생산·관리 비용의 증가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의 수입 단가는 중국산에 비해 약 1.5~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전국 도매시장 생표고 가격 동향

단위: 톤, 백만 엔, 엔/kg, %

구분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
도매수량	72,788	69,958	64,745	-5.7
도매가격	53,981	54,149	55,589	1.5
평균가격	742	774	859	7.6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日本 財務省.

표 4-18. 일본의 건표고 수입 단가 동향

단위: 엔/kg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
중국	955	858	789	755	1,075	3.0
한국	1,829	1,868	1,766	1,901	1,743	-1.2
한국/중국	1.9	2.2	2.2	2.5	1.6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日本 財務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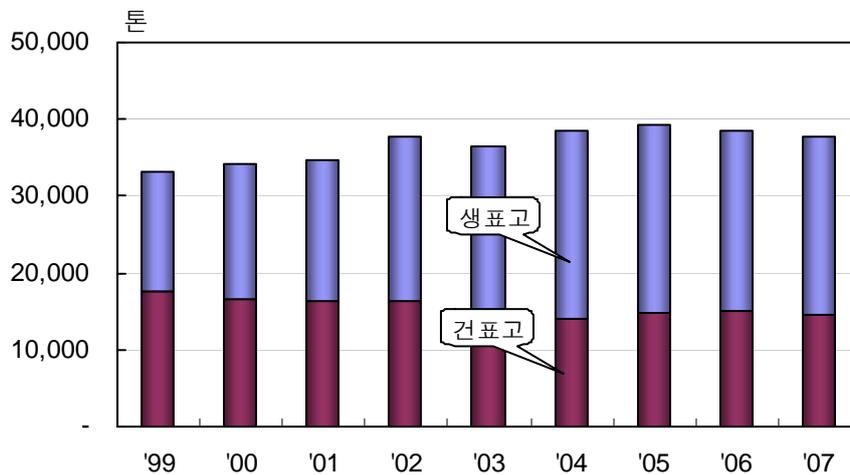
- 향후 일본은 표고버섯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 농림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져 표고버섯의 수입은 다소 감소하거나 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국내 수급 동향

2.2.1. 생산 및 소비

- 표고버섯의 생산량은 2007년 3만 7천 톤(생표고 환산 기준)으로 추정된다. 최근 표고버섯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 국내 인건비 및 원목가격의 상승 등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농가의 신규 접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목의 재배비율 증가, 여름철 고온건조 피해 등 재배 환경이 좋지 못한 원인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9. 표고버섯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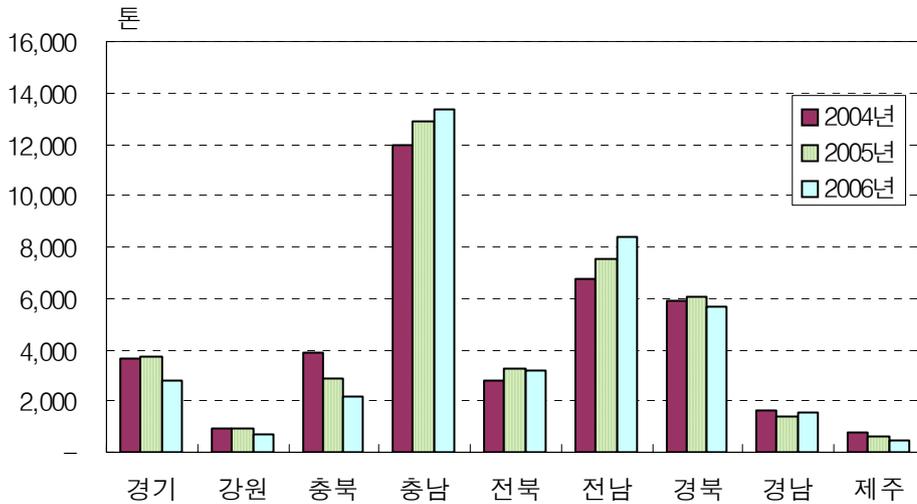
주: 1)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은 7.31).

2) 2007년도 생표고·건표고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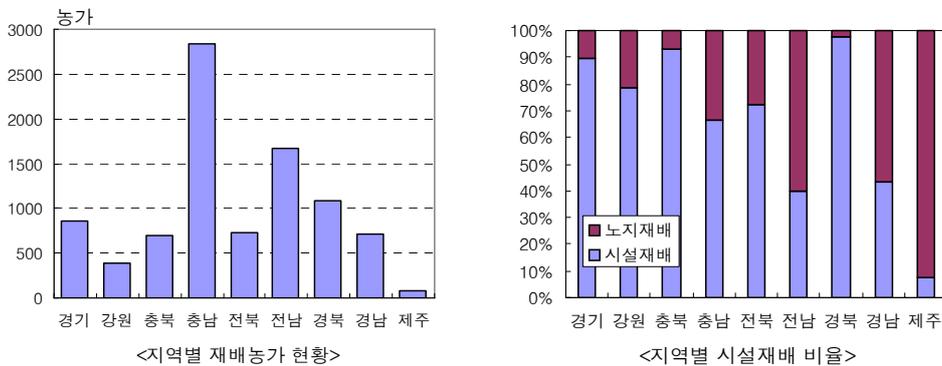
- 건표고 생산량은 소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가의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였기 때문이다. 건표고 소비량에 대한 수입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약 78%에 이르렀다.
- 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충남(34.1%), 전남(21.9%), 경북(14.7%) 등의 생산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충남 지역의 부여, 청양, 공주 등은 생산량이 많은 주요 생산지이다.

그림 4-10. 지역별 표고버섯의 생산 동향



주: 건표고 생산량은 생표고로 환산하였음(환산 비율은 7.31).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각 연도.

그림 4-11. 지역별 재배농가수 및 시설재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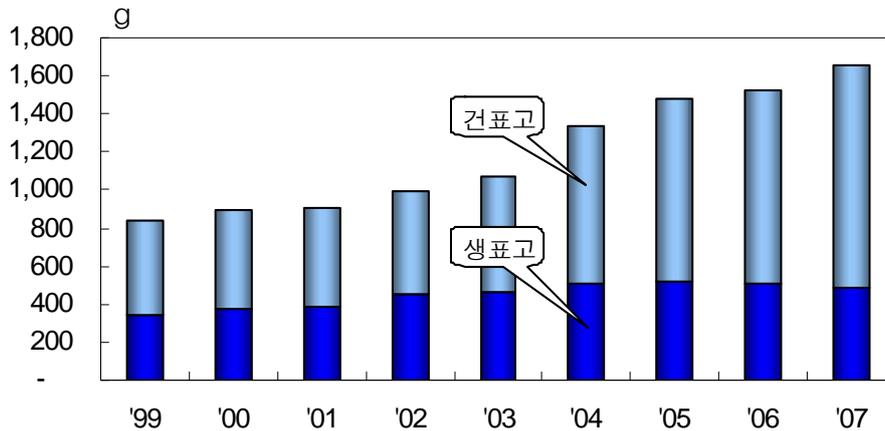


자료: 산림청 내부자료, 2005.

- 표고버섯 재배 농가는 2005년 총 9,187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충남 2,883가구, 전남 1,672가구, 경북 1,094가구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점차 산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 한국의 톱밥재배 비율은 아직 5% 미만이다. 톱밥재배 방식은 거의 모든 활엽수 톱밥을 사용할 수 있고 잔가지 등 폐잔재를 활용할 수 있어 원목재배에 비해 자원이 절약되며, 재배 기간이 짧아 자본회수가 용이하다. 이 때문에 한국의 표고버섯 재배방식은 톱밥배지 재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중국과 대만의 경우 톱밥재배 비율이 90% 이상이며 일본(생표고)도 점차 증가하여 60% 이상이다.

그림 4-12.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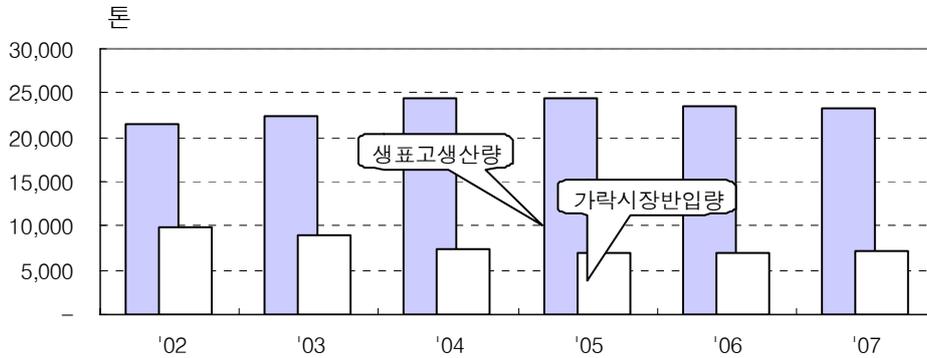
주: 건표고 1인당 소비량은 생표고 환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환산 비율 7.31).

- 표고버섯의 1인당 소비량(생표고 환산 기준)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생표고 485g, 건표고 1,191g으로 1인당 연간 1,676g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표고버섯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건강식품으로서의 표고버섯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2.2. 유통 및 가격

- 생표고는 단위농협(60%)과 작목반(40%)을 통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데, 전체 물량의 약 30~40%는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나머지는 수도권 유사도매시장과 지방의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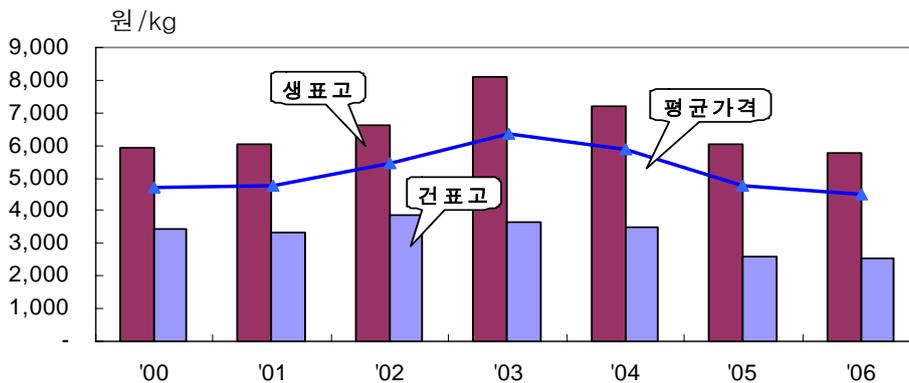
그림 4-13. 생표고 생산량과 가락시장 반입 동향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건표고는 주산지인 부여, 장흥 등의 산지농협 및 산지 표고협회에서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 입찰을 통해 유통되는데, 특히 장흥의 유치농협과 장동농협은 건표고 출하량의 40%를 취급한다.
- 표고버섯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건표고 가격은 2002년 이후 하락하였는데 이는 저가의 중국산이 지속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생표고 가격은 2003년 이후 하락하였는데 팽이, 새송이 등 대체 버섯류의 증대로 생표고의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14. 표고버섯의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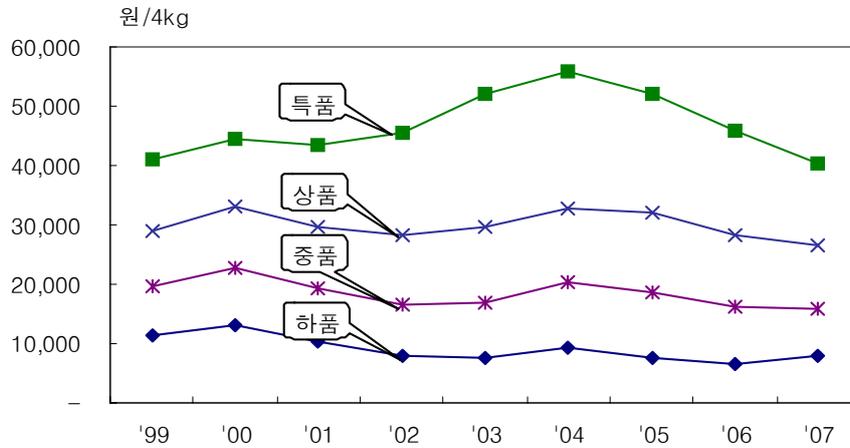


주: 1)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가격화하였음.

2) 건표고 가격은 생표고 환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환산 비율 7.31).

자료: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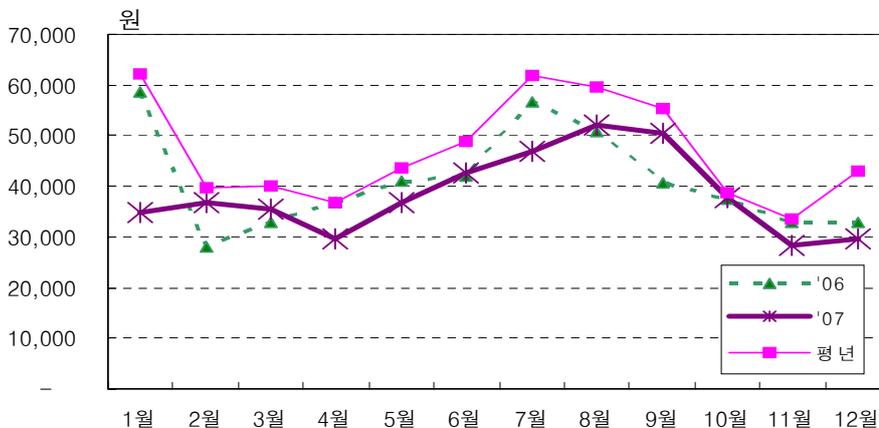
그림 4-15. 생표고의 등급별 가격 추이



주: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가격화하였음.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생표고의 등급별 가격을 보면 고급품의 경우 저급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고버섯의 생산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생표고 가격도 계절적 변동을 보이는데, 특히 특품·상품에서 이러한 계절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 고온, 건조, 한파, 폭설 등 기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그림 4-16. 생표고(상품) 도매가격의 계절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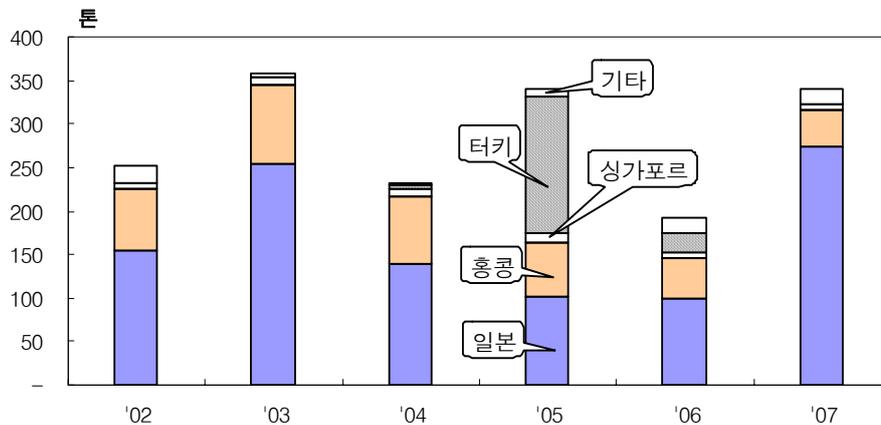
주: 도매가격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가격화하였음.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향후 표고버섯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고버섯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저가의 중국산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3. 수출입

- 1980년대 말까지 표고버섯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였으나 1990년 부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의 건표고 수출량은 약 345톤으로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였다. 생표고 수출량은 약 2톤으로 생산량의 0.6%에 불과하다.
- 표고버섯의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시장구조가 내수 위주로 바뀌었고 해외시장에서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 건표고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홍콩이다. 2007년의 수출량은 일본 255톤(79.5%), 홍콩 40톤(11.7%) 등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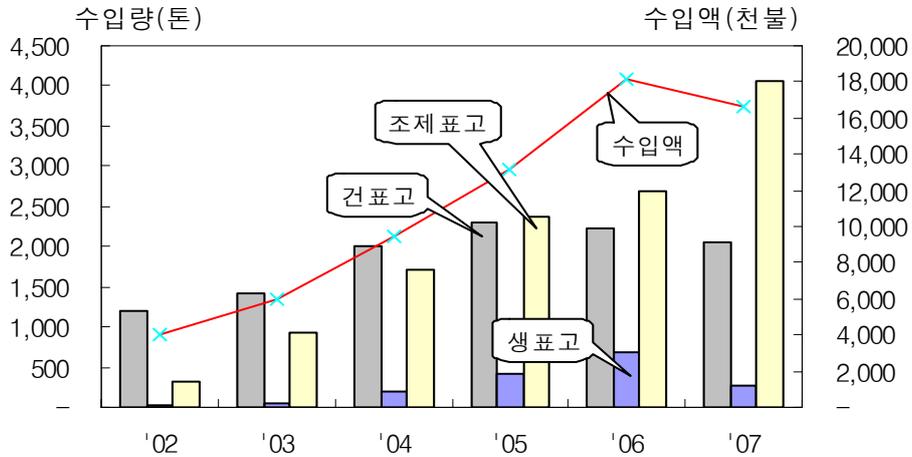
그림 4-17. 건표고의 국가별 수출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한국에서 수입하는 표고버섯의 형태는 주로 건표고, 조제표고이며 중국, 북한 등에서 수입된다. 건표고와 조제표고의 수입량은 2007년 각각 2,058톤, 4,054톤이며 이는 국내 소비량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반면 생표고의 수입량은 2007년 227톤으로 국내 생표고 소비량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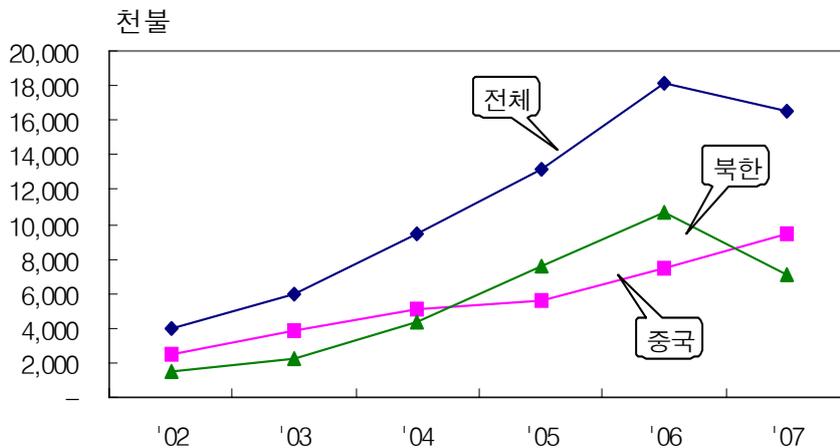
그림 4-18. 표고버섯의 제품별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1977년 중국의 시장개방 이후 주로 건표고 형태로 수입되었으나 근래에는 조제표고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조제표고는 통조림으로 가공한 형태로서 사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식자재 시장을 통해 음식점 등으로 유통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앞으로도 조제표고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산 표고버섯은 주로 건표고 형태로 반입되는데 무관세가 적용된다. 남북 교역 이후 반입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 11월부터 북한산 표고버섯이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되어 2007년 반입량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표고버섯의 주요 수입국별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2.3. 수급 전망

- 표고버섯 생산은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재배 방식이 원목에서 톱밥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년에는 약 4만 톤, 2013년에는 약 4만 5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은 중국산 또는 북한산을 위주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약 3만 9천 톤, 2013년에는 약 4만 7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수입 단가의 상승, 북한산에 대한 반입승인 품목으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 증대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 1인당 표고 소비량은 2008년 1,623g, 2013년에는 1,883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총소비량은 2008년 약 7만 8천 톤, 2013년에는 약 9만 2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은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8년에 1,075톤, 2013년에는 539톤 정도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9. 표고버섯 수급 전망(생표고 환산 기준)

단위: 톤

수급 전망	2006	2007	전 망		
			2008	2013	2018
공 급	75,168	82,333	79,964	93,104	107,670
국내생산	38,534	37,876	40,665	45,335	49,198
수 입	36,634	44,957	39,299	47,769	58,472
수 요	75,168	82,333	79,964	93,104	107,670
국내소비	73,726	81,199	78,889	92,565	107,444
수 출	1,442	1,634	1,075	539	226
1인당소비량(g)	1,527	1,657	1,623	1,883	2,178

주: 2007년도는 잠정 추정치임.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톱밥 재배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된다면 생표고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국내시장은 물론 일본 수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수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고버섯의 경우 현재 생산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원목 재배방식에 의한 전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D249 /2008. 12

임업관측사업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8년 12월 일 발행 2008년 12월 일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